

# 【신청서 요약본】

##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글로컬	문명교류	융복합
	역사학	고고학	의료사
	도시사	기술문명	네트워크
<b>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b>			<p>경희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격변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적 위기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 글로컬 문명교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문명교류사 교육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한다. 한국사와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여러 세부 학문분야의 연구진이 모여 인류문명의 토대와 변화를 긴 시간의 안목과 넓은 지리적 공간에서 다각도로 진단함으로써 학문적 균형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할 것이다.</p> <p>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 연구 양대 분야에서 중점 추진방향과 전략을 설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세부전공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융복합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시스템 혁신’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마련,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융합교육 환경 조성,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중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연구협력체계 강화,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p> <p>이상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이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p>
<b>교육역량 영역</b>			<p>본 교육연구팀이 소속된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의 네 전공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전공분야의 강좌는 토대, 심화, 그리고 응용과 실천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 학생들은 체계적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컬 문명교류사’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할 뿐 아니라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것이다. 교육연구팀은 밀도 있는 학사관리와 논문 심사와 지도를 통해 미래 학문을 이끌어갈 연구자,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세계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한다.</p> <p>본 연구팀의 참여교수는 학문적 수월성이 뛰어난 연구 성과를 교육으로 환원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이런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주제에 합당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학생들은 졸업 이후 대학교·연구소·박물관 또는 문화재 별관기관과 국가기록원 등 다양한 연구·교육기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다.</p> <p>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교육시스템 혁신’이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①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②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 ③ 조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④ 연구공간 제공, ⑤ 박물관/연구소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 ⑥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 ⑦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⑧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 ⑨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⑩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 등 세부 과제를 실행할 것이다.</p>

연구역량 영역	<p>본 교육연구팀은 다양한 세부 전공과 관심사를 가진 고고학 교수 2인과 역사학 전공 교수 3인이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주제 아래 모여 여러 시각과 학문적 토대에서 함께 연구하고, 대학원 프로그램을 한 층 발전시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여교수 5인은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저서와 번역서 등 저술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참여교수는 융복합적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컬 문명교류사를 연구할 것이며,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연구성과를 출간할 것이다.</p> <p>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이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의 5대 추진전략과 함께 구체적으로 ① 글로컬 문명교류사 저술 출판, ② 연구-교육의 양방향 피드백 확대, ③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④ 연구성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 ⑤ 교육연구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⑥ 연구성과의 대중화·실용화 연계 강화, ⑦ 타분야와 정기적 합동콜로키움 개최, ⑧ HK+ 등 대형연구사업과 협력 활성화, ⑨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⑩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10대 세부 과제를 실행할 것이다.</p> <p>본 교육연구팀이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국제화이다. 국외의 우수한 관련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함은 물론 대학원과정 학생들에게 장단기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 할 것이다.</p>
기대 효과	<p>글로컬 문명교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현대문명이 직면한 지역, 국가, 세계적 사회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진단과 해결로써 실천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합양할 뿐 아니라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흐름까지 포괄하는 전문연구자를 육성한다. 대학원 학생들은 관련 학계에 기여하는 학술 및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졸업 이후 대학교·연구소·박물관 또는 문화재 발굴기관과 국가기록원 등 다양한 연구·교육기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p> <p>첫째, 학계에 인정받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작성 을 지도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주제 아래 여러 세부전공분야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를 배출한다. 이로써 석사학위 수여자는 자연스럽게 박사과정에 진입해 학계의 젊은 세대 연구자로 성장하고, 박사학위 수여자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취업할 것이다.</p> <p>둘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한 뒤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될 것이다. 문화재 발굴과 보존, 관리, 박물관 전시와 교육, 도시 위생과 재생 관련 각종 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인류문명사’라는 토대 위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한다.</p> <p>셋째, 이를 바탕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대학의 교육연구기관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학문적 성찰과 해결에도 나서는 적극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모범이 되고자 한다.</p>

# I . 교육연구팀 구성, 비전 및 목표

## 1. 교육연구팀 구성

###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명	한글	성춘택	영문	null null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표 1-1> 교육연구팀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 번	저자/ 수상자	논문제목/저서제목/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 사명	권(호), 페이지/ISBN	게재연 도/출판 년도	DOI 번호 (해당 시)
1	성춘택	수렵채집민의 광역교류네트워크와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점유밀도의 변동	한국고고학보	112, pp.8-49	2019	
2	성춘택	구석기시대의 종말: 한국 구석기 퇴적층 최상부 “명갈색층” 재고	한국상고사학보	103, pp.5-36	2019	
3	성춘택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pp.4-35	2017	
4	성춘택	석기고고학	사회평론	pp. 1-476 / 9791188108121	2017	
5	Chuntaek Seong	The eastern Asian ‘Middle Palaeolithic’ revisited: a view from Korea	Antiquity	90(353), pp.1151-1165	2016	doi:10.15184/aqy.2016.141

## I. 교육연구팀 구성, 비전 및 목표

### 1. 교육연구팀 구성

####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교육연구팀장은 학계에서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과 행정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 1) 연구역량

교육연구팀장의 연구역량은 2019년 11월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삼불학술상” 수상이 보여준다. 교육연구팀장이 2017년 사회평론에서 발간한 『석기고고학』으로 학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책은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여러 학교의 고고학 강좌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등 학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다.

교육연구팀장은 최근 5년 동안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활발히 발표하였으며, 단독 번역학술서 2권을 포함, 단독저술 1권과 공동저술 1권 등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저명한 고고학 학술지인 *Antiquity*에 ‘The eastern Asian ‘Middle Palaeolithic’ revisited: a view from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했고(2인 중 제1저자), 현재도 다른 유명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상태이다. 국내학술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한국고고학보』와 『한국상고사학보』에 각각 4편(단독 2; 공동 2)과 2편(단독) 등 다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번역서 2권과 공동저서 1권, 그리고 「광역교류네트워크와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점유밀도의 변동」을 『한국고고학보』112집에, 「구석기시대의 종말: 한국 구석기 퇴적층 최상부 “명갈색층”재고」를 『한국상고사학보』103호에 게재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문명의 토대와 성장을 심층 분석한 『한국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들녘)라는 학술서를 4인 공동으로 발간했다.

### 2) 교육역량

대학원에서 다수의 석박사학위 학생을 배출했으며, 졸업학생은 학계에 인정받는 기관에 취업했다. 박사학위를 수여(2014년)한 지도학생은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2017년에, 그리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도학생도 2020년 모두 지역거점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2018년에는 박사과정 지도학생 2명과 공동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한국고고학보』에 논문을 게재했다(교육연구팀장 제1저자). 2020년 4월 말 석사학위 졸업생과 공동 논문이 등재학술지에 출간 예정이다. 졸업학생의 취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의 학예연구사를 비롯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연구직(무기계약직)에 2명이 합격해 재직하고 있다.

### 3) 행정역량

BK사업을 총괄하는 데 적임이라 할 만큼 풍부한 행정경험도 지니고 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과장(2013. 2–2015. 2)과 문과대학 부학장(2016. 2–2018. 2)을 역임했으며, 2009년 경희대학교 재임 때부터 중앙박물관의 고고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유적발굴현장에 책임자(책임조사원 또는 단장)로 성과를 낸 바 있다.

학과장 재직 동안 학과의 대내외 지표 향상에 노력했음은 물론 본교 지리학과와 공동으로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인문학을 전공하면서도 경험자료를 어떻게 데이터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부학장 재임으로 교내외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학교의 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다. 다양한 인적구성을 지닌 학생들, 그리고 여러 학과 교수와 직원과도 원활히 소통·협력한 경험과 성과가 있다.

## 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1	강인욱/Kang In Uk	교수	10033783	동양고고학	기존	내국인
2	민유기/MIN YOUNG-KI	교수	10118640	프랑스사	기존	내국인
3	성춘택 /Seong, Chuntaek	교수	10048804	고고학	기존	내국인
4	조정은 /Jeong-Eun Jo	조교수	10167562	중국근대사	신임	내국인
5	박윤재/Park Yunjae	교수	10004194	한국근대사	기존	내국인

###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단위: 명)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학과(부) 소속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2020.05.14	사학과	10	5

<표 1-4>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9	9	9	9	10	10	10		
전입 교수 수 (명)	0	0	0	0	1	0	0		
전출 교수 수 (명)	0	0	0	0	0	0	0		

<표 1-5> 최근 3년간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조정은	2019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표 1-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접수 마감일	사학과	전체	16	13	81.25	7	1	14.29	1	0	0.00	24	14	58.33
		자교 학사	11	9	81.82	3	0	0.00	1	0	0.00	15	9	60.00
		외국인	0	0	-	0	0	-	0	0	-	0	0	-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80.00									

<표 1-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No data have been found.						

##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1 글로컬 문명교류사 교육·연구의 필요성



<그림 1> 글로컬 문명교류사 개념도

인류문명은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문명은 항상 위기였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위기는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문명교류를 통해 극복되기도 했다. 고대, 중세, 근대의 문명은 교류로 촉발된 위기를 다시 교류로 극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현재, 문명의 기원과 성장, 변화와 위기, 그리고 재생의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은 상이한 사회문화권들이 교류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쇠퇴했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얹힌 현대 세계에서 지역사와 문화의 이해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세계를 이해하고 위기의 맥락을 알기 위해 글로컬 문명교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희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문명교류사 교육·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글로컬 문명교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현대문명이 직면한 지역, 국가, 세계적 사회문제에 인문학적 진단과 해결로써 실천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세기 역사서술, 그리고 문명 연구에는 서양(유럽)중심주의라는 한계가 있었

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역사서술과 연구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명교류사의 연구에서는 동양과 서양, 비문명과 문명, 고대와 중세와 근대 간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본 교육연구팀이 문명교류사에 주목하면서 ‘글로벌’을 화두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동양의 오랜 문명적 전통 위에서 서양의 지식체계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양(유럽) 중심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동서양의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문명교류사 연구가 가능하다는 잠재력이 크다.

본 교육연구팀은 글로벌 비교사적 관점에서 실천적이고 창의적으로 문명의 기원과 성장의 맥락, 쇠퇴의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자를 양성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전공이 있어 총체적 문명교류사 연구에 강점을 가진다. 문명교류사라는 주제 아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이 참여하여 방법론적 융합을 꾀한다. 이를 통해 여러 접근방식이 글로벌 문명교류사라는 공통 주제 아래 융합하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생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의 문명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였는지 역사적 안목에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서 책임감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학문적 수혜를 입은 인재는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지식 창출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의 실천이라는 인문학의 사명에도 부합한다. 이 점은 인류문명이 겪고 있는 위기와 이것의 극복을 역사적 관점에서 경험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 방향과도 일치한다.

## 2 전략체계

### 1. 교육연구팀의 전략체계

비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문명교류사 연구기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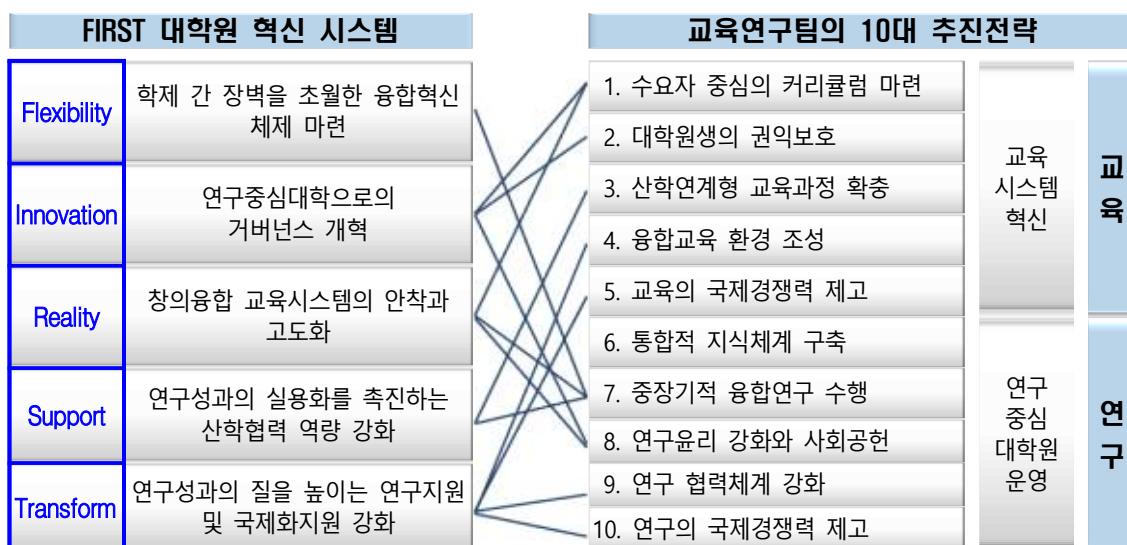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분야	교육	연구
추진방향	교육시스템 혁신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
10대 추진전략	1.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마련 2. 대학원생의 권리보호 3.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4. 융합교육 환경 조성 5.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6.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7. 종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8.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9. 연구 협력체계 강화 10.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문명교류사 연구기관”이고,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그리고 목표의 달성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연구 2대 분야의 10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일차적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이룰 것이고, 나아가 이 목표의 달성을 통해 궁극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2대 분야의 10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은 “교육시스템 혁신”이다. 이를 위해 ①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마련, ②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③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④ 융합교육 환경 조성, ⑤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교육 분야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연구 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은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이다. 이를 위해 ⑥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⑦ 중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⑧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⑨ 연구 협력체계 강화, ⑩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연구 분야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2. 대학원 혁신방향과의 정합성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입체형 인재를 인큐베이팅하는 [FIRST 대학원 혁신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입체형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1. 학제 간 장벽을 초월한 융합혁신 체제 마련, 2.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거버넌스 개혁, 3. 창의융합 교육시스템의 안착과 고도화, 4.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산학협력 역량 강화, 5.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연구지원 및 국제화지원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서 18개의 핵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소속 대학원의 혁신방향은 교육연구팀의 전략체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학제 간 융합,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 교육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산학협력, 연구성과 질의 제고와 국제화 등을 본 교육연구팀이 전략과제로 삼은 내용이다. 따라서 교육연구팀의 글로벌 문명교류사 교육·연구를 통해 대학원의 혁신에 이바지할 것이다.

### 3 교육 비전과 목표

#### 교육시스템 혁신

5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실행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마련	1)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2)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
2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3) 조교(연구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4)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3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5) 박물관/연구소 등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6)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
4	융합교육 환경 조성	7)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8)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
5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9)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10)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교육시스템 혁신”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시기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지역적으로 한국과 동양과 서양을, 세부 주제로는 도시와 문명, 생태와 환경, 질병과 의료, 기술전통의 진화 및 네트워크 등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광범위하고도 융복합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마련**한다. 교육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수요자의 교육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②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대학원생의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대학원생은 학내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된다. 대학원생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③ 조교(연구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④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실천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학문과 실무를 겸비하는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⑤ 박물관/연구소 등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⑥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의 산업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연구로 무장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글로컬 문명교류 사라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한 것도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연구를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⑦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⑧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재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한편, 외국의 우수학생이 문명교류사 연구를 위해 본 교육연구팀에 찾아오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⑨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⑩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 4 연구 비전과 목표

###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

5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실행과제
1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1) 글로컬 문명교류사 저술 출판 2) 연구-교육의 양방향 피드백 확대
2	중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4) 연구성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
3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5) 교육연구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6) 연구성과의 대중화·실용화 연계 강화
4	연구 협력체계 강화	7) 타분야와 정기적 합동콜로키움 개최 8) HK+ 등 대형연구사업과의 협력 활성화
5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9)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10) 국제공동연구 수행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총 5인의 참여교수를 고고학 교수 2인과 역사학 교수 3인으로 구성하였다. 고고학 교수 2인의 세부 전공은 각각 수렵채집사회의 물질문화와 기술전통의 진화, 그리고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동아시아 문명교류다. 그리고 역사학 교수 3인의 세부 전공은 각각 한국 근대의료사, 중국 근대의료사, 서양 근현대도시사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5인은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 수행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교육·연구역량을 지니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을 연구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대학의 연구환경을 보면 질적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평가지표는 다변화하고 있으며, 대표성과 위주의 정성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첫째, **통합적 지식체계를 구축**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글로컬 문명교류사 전체를 하나의 구조화된 지식체계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로써 글로컬 문명교류사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일국사적, 민족적, 서양(유럽)중심적 세계관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글로컬 문명교류사 저술 출판, ② 연구-교육의 양방향 피드백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 융합연구를 수행**한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시기적, 지역적, 세부 주제의 범위가 넓기에 이들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장기지속적인 융합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③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④ 연구성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⑤ 교육연구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⑥ 연구성과의 대중화·실용화 연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글로컬 문명교류사 연구를 위해서는 타분야와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⑦ 타분야와 정기적 합동콜로키움 개최, ⑧ HK+ 등 대형연구사업과의 협력 활성화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문명교류사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⑨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⑩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할 것이다.

## 5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과 미래 목표 달성 방안

본 교육연구팀은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계 저명대학 및 연구소를 벤치마킹하고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이 벤치마킹한 기관은 ①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의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Department of History and Civilization,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② 중국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The David F. Musto Center for Drugs and National Security Studies)이다.

지역	기관명
1 유럽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 (Department of History and Civilization,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2 아시아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 (The David F. Musto Center for Drugs and National Security Studies)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는 유럽연합이 설립한 대학원 및 박사후 연구기관으로, 초국적 역사 연구를 통한 비판적 성찰을 현재적 문제와 연관시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상통하고, 국제적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는 본 교육연구팀 교육·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질병·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학술교류협정(MOU)과 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벤치마킹 대상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
대학원생 인력확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 출신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li><li>▶ 지원자에 한해 기타 외부 장학금 지원</li></ul>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세미나/콜로키움 프로그램 운영</li><li>▶ 타대학으로 파견/교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 비용 일부 지원</li><li>▶ 학생 주도의 연구 소모임 구성을 유도하여 연구주제 개발, 논문 작성 독려</li></ul>
외국인 학생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인 학생들에게 말하기/글쓰기 수업 지원</li><li>▶ 논문 출간시 편집, 번역, 색인 작성 지원</li><li>▶ 유럽, 미국, 중국 및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li></ul>
논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논문지도교수/부 지도교수(2nd reader)의 다양한 관점 제공</li><li>▶ 학과 차원에서 개인별 논문지도/감독 회의 운영</li><li>▶ 연차적으로 논문계획서→논문작성을 지도하여 4년 내 논문 완료</li></ul>

우선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는 대학원생에게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갖지 않고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자/전문가 초청을 통한 세미나/콜로키움과 다양한 파견/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원 높은 지원을 통해 대학원의 국제화를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문작성을 지도/보완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유럽대학연구원 역사문명학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에서 학생이 찾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교류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를 확장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 점도 주목된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상기 사례는 학제 간 융합 교과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돋고, 지식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성을 갖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벤치마킹 대상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
연구인력	▶ 의료사 · 의철학 · 중의학 연구인력 17명
국제협력	▶ 의료인문학 관련 다양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 추진 ▶ 영국·미국 의료인문학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대학원생 교육	▶ 중 · 영 의학인문학 협동과정(MHCUK)을 운영하여 석 · 박사과정생 양성
국제저널	▶ 2016년부터 『의료사회사연구(醫療社會史研究)』 발행(6월·12월) ▶ 의료인문학 관련 국제 연구성과 수록(국제적 학문교류 추진)

다음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의료인문학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의 측면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다. 의료사·의철학·중의학 분야 전문 연구원이 2020년 5월 기준 17명인데, 상당히 많은 편이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미국의 의료인문학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대학과 중영의학인문학 협동과정을 운영하여 석박사과정생을 양성한다. 2016년부터는 『의료사회사연구』라는 국제저널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문학 관련 국제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미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연구 허브 구축 및 국외 장·단기 공동연구 추진**이다.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학술교류협정(MOU)을 통하여 교환학생 등 인적 교류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는 사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교내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인·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와의 공동주최가 가능하다. 셋째, **외국인 초빙교원 임용**이다. 해외 유수 대학의 석학을 초빙하여 각국의 다양한 연구와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초빙 교원을 활용한 원어민 강좌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제화 감각을 함양한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천적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한다.

## **II. 교육역량 영역**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 II. 교육역량 영역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 1.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본 교육연구팀이 소속된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1959년 석사과정, 1963년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현재 세부 전공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의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 전문 이론과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은 전문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고 연구방법론을 습득하며, 졸업 이후 대학교·연구소·박물관 또는 문화재 발굴기관과 국가기록원 등 다양한 연구·교육기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석사과정은 최소 4학기 동안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고, 박사과정은 최소 4학기 동안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다. 수료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세부 전공과 관계없이 석사과정에서는 문학석사, 박사과정에서는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 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점	학기당 취득학점	비고
석사	0	24학점	0	24학점	최대 9학점	
박사	0	36학점	0	36학점	최대 12학점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각 분야의 수업은 역사이론과 연구방법론의 수준에 따라 “토대, 심화, 응용과 실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하면 가장 먼저 토대 단계의 교과과정을 밟게 된다.

“**토대**”는 연구방법과 이론 입문, 연구현황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다. 다음으로 “**심화**”는 기초 단계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다. 마지막 “**응용과 실천**”은 기초·심화 단계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 혹은 인접 분야에 주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 전공은 토대 단계에서 한국사 연구의 토대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사료강독을 익히게 된다. 한국과 주변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에 대한 사료를 대학원생이 직접 강독하고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심화 단계에서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사의 시대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응용과 실천 단계에서는 한국사 연구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한다. 동양사 전공은 토대 단계에서 고중세부터 근현대까지 시대사를 개관하며 중국사의 주요 흐름을 파악한다. 심화 단계에서는 시대별 주요 연구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응용과 실천 단계에서는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문화교류를 살펴보는 북방민족사나 중국외교사 등을 학습한다. 서양사 전공은 토대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연구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해 사학사를 고찰한다. 심화 단계에서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 응용 및 실천 단계에서는 융합형 주제인 도시문명사와 과학기술사를 학습한다. 도시문명사와 과학기술사는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이 깊은 바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고고학 전공은 토대 단계에서 물질문화의 연구이론 및 방법론을 개괄하고 고고학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심화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실습하고 선사-역사시대의 주제별 이슈에 접근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심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응용 및 실천 단계에서는 오늘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실천적 과제를 탐구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전공별 교육과정>

구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b>토대</b>	한국사강독 한국고문서연구	송대사연구 청대사연구 중국근대사연구 중국현대사연구	서양사학사특강 미국사연구 유럽사연구	고고학이론과 방법연구 고고학사연구 석기론 양식론
<b>심화</b>	한국고대사연구 한국중세사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사상사연구 한국사특강	동양중세사특강 동양근대사특강 중국근대사상사연구	프랑스사연구 서양고대사연구 서양중세사연구 서양근세사연구 서양최근세사연구 서양현대사연구 서양사특강	취락고고학 수량고고학 동양선사고고학 고구려·발해의 고고학 한국중세고고학특강 중앙아시아고고학 북한고고학특강 선사고고학특강
<b>응용과 실천</b>	한국사의 제문제 한국사연습	명청시대계약문서연구 중국외교사연구 북방민족사연구	서양도시문명사 서양과학기술사연구	수렵채집민고고학특강 고고학과 현대사회 선사생업경제특강 정치사회고고학 현대고고학 고고학과 박물관학 기술과 물질문화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개요>**

분과	단계	과정명	개요
한국사	토대	1 한국사강독	한국사 관계의 중요한 원전을 해독한다.
		2 한국고문서연구	고문서를 해독하여 한국사의 주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심화	3 한국고대사연구	한국 고대사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 양상을 검토한다.
		4 한국중세사연구	한국 중세사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 양상을 검토한다.
	응용과 실천	5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 양상을 검토한다.
		6 한국사상사연구	한국사를 형성·발전시켜나갔던 사상의 흐름을 고찰한다.
		7 한국사특강	한국사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 특질 면에서 고찰한다.
	응용과 실천	8 한국사의 제문제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한다.
		9 한국사연습	한국사를 움직여 온 기본 동력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동양사	토대	10 송대사연구	중국 송대의 역사를 당송변혁기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1 청대사연구	청조의 성취와 그 발전의 한계 등에 대해 연구한다.
		12 중국근대사연구	중국 전통체제의 붕괴 과정과 중국의 저항 및 극복을 연구한다.
	심화	13 중국현대사연구	중국 현대사의 주요 이슈를 쟁점별로 이해한다.
		14 동양중세사특강	동양중세사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쟁점을 이해하게 한다.
		15 동양근대사특강	동양근대사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쟁점을 이해하게 한다.
	응용과 실천	16 중국근대사상사연구	중국 근대의 사상사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명청시대계약문서연구	중국 명청시대 계약문서 연구를 통해 사회상을 조명한다.
		18 중국외교사연구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인식 및 조공체제 등 외교관계를 연구한다.
		19 북방민족사연구	중국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분석·연구한다.
서양사	토대	20 서양사학사특강	서양의 중요 역사가와 시대의 역사사상을 집중적으로 이해한다.
		21 미국사연구	미국사의 전개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22 유럽사연구	유럽사의 특정한 문제를 선택하여 연구·강의·논평한다.
	심화	23 프랑스사연구	프랑스사의 전개과정과 주요 연구성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24 서양고대사연구	고대 그리스사와 로마사 연구 경향과 논점들을 파악한다.
		25 서양중세사연구	유럽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응용과 실천	26 서양근세사연구	르네상스 이후 유럽 근대사의 주요 흐름에 대해 연구한다.
		27 서양최근세사연구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 서양 각국 국제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28 서양현대사연구	서양 현대사의 주요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고고학	토대	29 서양사특강	서양사의 특정한 문제를 연구·강의·논평한다.
		30 서양도시문명사	역사학과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 서양도시문명을 분석한다.
		31 서양과학기술사연구	서양과학기술사 연구 경향과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심화	32 고고학이론과 방법연구	고고학의 연구방법론과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33 고고학사연구	현대고고학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고찰한다.
		34 석기론	선사시대 석기유물군의 기술과 분석을 다룬다.
	응용과 실천	35 양식론	고고학의 토기 양식분류의 방법과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36 취락고고학	취락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37 수량고고학	고고학에서 이용되는 수량적인 방법론을 이해한다.
	심화	38 동양선사고고학	동양의 선사시대를 개괄하고 문화변동 과정을 검토한다.
		39 고구려·발해의 고고학	고구려와 발해의 최신 고고학적 성과를 알아본다.
		40 한국중세고고학특강	고려부터 조선까지 한반도의 고고학적 문화를 살펴본다.
	응용과 실천	41 중앙아시아고고학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고대문화의 교류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본다.
		42 북한고고학특강	분단 이후 북한의 고고학적 성과를 살펴본다.
		43 선사고고학특강	선사시대 고고 자료의 설명 및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토대	44 수렵채집민고고학특강	민족지적 분석을 통해 수렵채집민 사회를 비교·연구한다.
		45 고고학과 현대사회	현대의 역사 갈등 속에서 고고학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본다.
		46 선사생업경제특강	선사시대 생업경제와 관계된 고고학적 논의를 점검한다.
	심화	47 정치사회고고학	고고 자료를 통해 정치·사회구조의 변화과정을 연구한다.
		48 현대고고학	진화고고학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고고학의 이론을 살펴본다.
		49 고고학과 박물관학	고고학이 박물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살펴본다.
	응용과 실천	50 기술과 물질문화	기술과 물질문화의 상호작용을 고고학의 시각에서 연구한다.

## 2.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대학원생이 전문연구자로서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크게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공개발표**, **학술지 투고** 실적, **선수과목 수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충실성>

구분	단계	대상	내용
1	논문제출자격시험	과정생 전원	석사: 3차 / 박사: 5차
2	논문공개발표	과정생 전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3	학술지 투고	과정생 전원	석사: KCI급 이상 투고 박사: KCI급 이상 게재
4	선수과목 수강	非사학전공 과정생	석사: 9학점 / 박사: 12학점

첫째, 대학원생은 반드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 3차, 박사과정은 5차에 걸쳐 치러진다. 응시자는 직전 학기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신청하고, 해당 교/강사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가 전공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는 논술형 서술로 진행된다.

둘째,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한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위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는 학과에서 주관하며 학과 소속 교수와 졸업생, 재학생이 참여하여 발표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검증받는다. 이후 각 분과의 소속 교수가 발표자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발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은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사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KCI급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KCI급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 이와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선수과목 명단>

연번	분야	과목명	학점	대상학위과정
1	공통	역사학개론	3	석·박사
2	한국사	한국사입문	3	석·박사
3	한국사	한국문화강독	3	석·박사
4	동양사	동아시아사입문	3	석·박사
5	동양사	중국문화강독	3	석·박사
6	서양사	서양사입문	3	석·박사
7	고고학	고고학연구기초	3	석·박사
8	고고학	한국선사고고학	3	석·박사
9	고고학	한국역사고고학	3	석·박사

넷째, 대학원 진학자 중 역사학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육 수월성과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학부과정의 선수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선수과목은 각 전공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학부과정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학과의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사학 전공이 아닌 대학원생의 경우 위의 선수과목 중 석사과정생은 9학점, 박사과정생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는 분과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본질적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위취득자가 학위취득 이후 전문연구자로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도입하여 엄정한 학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지속성이 강하다. 학부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교육되고, 대학원과정에서는 더욱 심화된 전문적인 내용이 교육된다. 예를 들어 학부과정의 <세계도시문명사>는 대학원과정의 <서양도시문명사>의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도시문명사>에서는 도시사의 특성과 연구방법론,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다.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서양 주요 도시의 기원과 성장, 발달과정을 학습하고, 도시 문화와 공간구조의 특성을 파악한다. 아울러 서양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인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의 역사와 문화와 비교·고찰한다. 즉 학부의 <세계도시문명사>에서는 도시문명사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대학원의 <서양도시문명사>에서는 도시 문명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이 이뤄진다.

학부과정에서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또 학부 졸업논문도 작성한다. 학부과정 중 <역사학연구와연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역사학 연구방법론, 논문작성법 등 논문작성에 필요한 이론적인 학습이 이뤄진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학부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하나 정해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부생은 모두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다. 대부분 <역사학연구와연습>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발전시켜 제출한다. <역사학연구와연습>의 이론적인 학습과 졸업논문 작성은 대학원 교과과정과 깊은 연계성을 갖는다.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이 결국 학위논문의 집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기초적인 학습과 실습을 이미 학부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고고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고고아카데미>는 한국고대사와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2~3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운영되고 있다. 고대사 관련 주요 사료를 강독하고, 고대사 연구에 필요한 중국어 기초학습도 이뤄진다. 또 고고학 연구방법론도 학습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학부생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전문적인 역사학 연구 경험을 쌓으면서 연구 활동에 대한 흥미를 키우게 되고 이것이 대학원 진학의 동인이 된다.

#### <학부생 대상 고고아카데미 운영 개요>

구분	기간	주요 내용	연수인원	대학원 진학
1기	2015.01~10	『사기』 조선열전, 『위략』 위만조선 강독	9명	1명
2기	2016.01~10	목간과 고대사, 중국어기초	10명	4명
3기	2017.02~10	동아시아 속의 한국고대사, 중국어기초	4명	1명
4기	2020.02~08	북방고고학, 생물고고학, 한국고대사	5명	-

### 3. 교과과정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글로컬 문명교류사” 교육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는 학부과정부터 “글로컬 문명교류사”와 관련된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201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에 선정되어 “시공간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을 수행하면서 시간(역사)과 공간(지리)을 아우르는 주제로 동서양의 도시문명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였다. <세계사의 공간적 이해>, <세계도시문명사>, <고대문명의 시공간>, <동아시아의 역사자리>, <한국역사자리특강> 등 이 시기 개설한 수업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과목에서는 동서양 주요 도시문명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학습한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이후 현재 사학과에서는 대학혁신사업 및 HK+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시사와 의료사, 역사학 콘텐츠를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2019년 2학기에 신설한 <인문학융합컨설팅> (이후 <역사학콘텐츠제작과 활용>으로 개칭), <캡스톤디자인> 및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질병과 역사>가 있다. <역사학콘텐츠제작과 활용> 및 <캡스톤디자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역사학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질병과 역사>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질병과 질병이 야기한 중요한 사회변동에 대해 학습한다. 따라서 본교 출신의 대학원생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의 도시문명과 의료, 기술에 관한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이러한 학부과정에서의 기초교육은 대학원 진학 이후 아젠다 관련 연구를 심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역사학과 고고학의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하다. 많은 대학에서 역사학과 고고학은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고고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고학과 역사학의 융합 교육이 가능하다. 역사학과 고고학은 과거 인간의 발자취를 문헌과 유물이라는 상호보완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교류사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인 학문 태도를 벗어나 역사학과 고고학의 융합적인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역사학(한국사·동양사·서양사)과 고고학의 영역별로 균형 잡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실질적인 전공 간 융복합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2020-21년 대학원 교육과정이 끝나고 2022-23년 교육과정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공 간 융복합 공통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를 주제로 한 융복합 수업을 편성하고, 각 분과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분과 간 학문적 교류를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밀도 있는 학사관리와 연구지도가 가능하다. 그동안 배출한 졸업생은 각 전공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 중이고, 그 결과물이 국내 외 저명한 학술지에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출한 연구인력은 국내 박물관과 연구소에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 2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운영 계획

비전과 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교육시스템 혁신”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시기적, 지역적, 분야별로 다루는 범위가 넓고 융복합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펴본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사관리체계의 수월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비전과 목표에서 “교육시스템 혁신”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하였다.

### 교육시스템 혁신

5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실행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구축	1)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2)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
2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3) 조교(연구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4)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3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5) 박물관/연구소 등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6)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
4	융합교육 환경 조성	7)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8)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
5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9)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10)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

#### 전략 1.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구축

##### 1)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대학원 교과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원생 스스로가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학생 주도의 교과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는 교수가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생은 그에 따르는 경향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계하고 또 운영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 2)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

본 과제에 선정되고 대학원생 정원이 증원되면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내 학술소모임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사업기간 내 2~7년차 동안 5개 학술 소모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자율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사업비 세부내역 참조). 그리고 현재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분야별 대학원생의 집단 세미나를 확대·발전시켜 대학원생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매 학기 월 1회씩 연간 총 8회의 교육 연구팀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및 외부 전문가의 학술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제고할 방침이다.

## 전략 2.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 3) 조교(연구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대학원 조교나 프로젝트 참여 대학원생의 열악한 처우와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를 염두에 두고 조교(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법과 규정으로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대학원생이 본연의 연구 활동 외에 교수의 사적인 요청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 내용의 내부 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조교(연구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갑질’ 근절을 위해 대학원 자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 4)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서 연구공간의 확보는 중요하다. 많은 대학이 대학원생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역시 오래전부터 연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 대학원생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신청 단계 때부터 대학원 측과 긴밀히 소통하였다. 사업 선정 이후 대학원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바 미리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학원생 연구 및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현재 본 교육연구팀은 소속 학과가 있는 문과대학 건물에 참여 대학원생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다. 향후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략 3.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 5) 박물관/연구소 등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대학원생이 졸업 후에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여러 기관과 MOU를 맺어 인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MOU를 맺고 있거

나 협의 중인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강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등이다. 그리고 석·박사 재학생과 수료생들에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관련 기관의 실제 연구 교육 업무와 관련한 현장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사 전문 인력은 주요 지자체의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책연구소, 과학관 등과 협력하여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할 예정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처럼 이들 기관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6)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역사학적·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교과과정을 통하여 고민할 예정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와 관련이 깊은 도시문제, 질병·의료문제, 기술 네트워크 문제에 관한 교과과정은 이미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이러한 교과과정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전략 4. 융합교육 환경 조성

#### 7)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아젠다에 맞춰 분과별 융복합을 접목한 새로운 교과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원 교과과정에 전공 간 공통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통과목은 BK 사업 신청주제인 글로컬 문명교류사에 맞춰 문명사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편성할 것이다.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필수로 수강하여 전공 간 학문적 교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공 간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 또 수업 수강에 그치지 않고, 학위논문 제출을 위해 필요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공통과목으로 응시하게 하여 관련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 8)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진보는 산업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촉발하고, 이러한 변화는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 연구에 기반을 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한 것도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 연구를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사실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영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의학, 생물학, 지리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과 학제 간 교육·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글로컬 문명교류사의 교육·연구를 통해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 연구로 무장한 혁신적·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배경에서 학점교류와 같은 세부분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전략 5.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 9)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본 교육연구팀은 매년 단기연수 5인, 장기연수 2인을 계획하고 있다(사업비 세부내역 참조). 항공비와 체재비를 전액 지원하여 연수자가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정해진 기간 이후 계속해서 연수를 이어가면 비용은 본인 부담). 연수 기관은 본 교육연구팀이 벤치마킹한 기관을 포함하여 경희대학교 사학과와 MOU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이 될 것이다. 장기연수자는 직접 관련 연구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국제화 역량을 키울 것이다. 단기연수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고고학 전공자는 장단기 연수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발굴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 10)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

비전과 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육연구팀은 외국의 우수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들을 향후 세계적인 문명교류사 연구자로 키워내고자 한다. MOU를 맺은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성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학생에게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3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교수의 연구성과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전공별로 특강 과목을 마련하여 교수의 최신 연구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참여교수가 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을 맡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학원생이 참여함으로써 교수의 연구가 대학원생 교육으로 이어진다.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연구소로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학술행사에는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성과를 학습할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각 사업의 연구보조원이 되어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구성과는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정규교과 이외의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성을 높인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는 방학 중 고고학 아카데미를 열어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고고학 지식과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실험·실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과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에서도 학문후속세대 지원책의 하나로 중국의료사문헌강독아카데미를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료사의 중요한 문헌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의료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기초지식 습득을 돋는다. 의료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생 외에 의료사에 관심 있는 학부생도 참여하고 있어 의료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 1

####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5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실행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구축	1) 학생 주도 교과과정 마련 2) 대학원 중심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강화 3) 조교(연구원) 업무협약으로 대학원생 보호 4)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2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5) 박물관/연구소 등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6)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
3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확충	7) 글로컬 문명교류사 공통교과과정 개설 8) 학점교류 등 세부분야 간 교류 활성화
4	융합교육 환경 조성	9)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10)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
5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운영을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세부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3-6)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이 그것이다.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이 확충될 것이고, 이것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분야 중점 추진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역사학적,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역사학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각 지역과 과거 여러 시대에 발생하였던 문명사적 갈등이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교과과정을 통하여 고민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 문명교류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대 문명이 겪고 있는 도시문제, 질병·의료문제, 기술 네트워크에 관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야	전공	주요 내용
도시	서양사, 동양사	▶ 현대 도시의 기원과 개발과정, 그리고 도시개발이 초래한 질병과 생태, 위생과 공중보건, 인구와 빙곤 등 도시문명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질병·의료	한국사, 서양사	▶ 질병·의료문제, 특히 전염병의 확산과 정부의 방역체계를 한국, 동양, 서양의 주요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이해
기술 네트워크	고고학	▶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술의 발달과 기술 네트워크의 형성이 인간의 삶과 생각, 그리고 물질문화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

첫째, 도시문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역사학과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 현대 도시의 기원과 개발과정, 그리고 도시개발이 초래한 질병과 생태, 위생과 공중보건, 인구와 빈곤과 같은 도시문명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찰적 대안 모색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양사 과목 중 <서양도시문명사>, <서양사특강>, <서양과학기술사연구>, <서양최근세사연구>, <유럽사연구>, <미국사연구> 등에서 도시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동양사 과목 중 <동양근대사특강>에서도 도시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서양도시문명사>에서는 도시문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룬다. 고대부터 근대 까지 도시문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도시문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박물관 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서양사특강>에서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미국 사회를 사회변화, 사회질서의 재구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동과 정착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서양과학기술사연구>에서는 환경사에 대한 이론, 방법론, 핵심 연구 주제, 주요 연구성과 등을 고찰한다. 따라서 환경사 교육에서는 오늘날 인간과 생태환경의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게 된다. 2020년 1학기 <유럽사연구>에서는 유럽 도시문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치, 경제 등을 과학사·문명사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편 2017년 2학기 <동양근대사특강>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근대도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상하이의 도시화와 의료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질병·의료문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질병·의료문제는 본 교육연구팀이 가장 경쟁력을 갖는 분야 중 하나이다. 현대 문명이 질병·의료문제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사회문제는, 최근 COVID-19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체계의 불완전성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는 이 도시의 질병과 의료, 방역 등에 관한 문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가르쳐왔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전염병, 예컨대 페스트, 두창, 콜레라, 결핵 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염병의 전파 경로와 감염의 양상과 피해를 검토하고, 한, 중, 일 정부의 방역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방역정책은 전염병의 감염양상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대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되는 질병과 공기 중에서 전염되는 질병은 전혀 다른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COVID-19와 같은 오늘날의 질병·의료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통해 현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질병·의료문제를 전공한 교수는 한국근대의료사 전공교수 1명과 중국근대의료사 전공교수 1명 등 2명이며 모두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한다. 이 중 한국근대의료사 전공교수는 국내 한국의료사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중국근대의료사 전공교수는 2019년에 부임한 신임교수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의료지식의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임교수의 확충으로 앞으로는 정규 교과목에도 중국 및 동아시아 의료사 관련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교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사학과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HK+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가치의 정립과 통합의료인문학”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 3인이 HK+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은 HK+ 사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지역인문학센터를 통해서 의료인문학 주제의 다양한 대중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질병과 질환, 웰빙, 치유, 생명, 보건 등을 주제로 하는 총 8회의 대중강연

이 열렸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지역사회의 인문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며, 본 교육 연구팀의 교육역량이 드러나는 사례다. 또 2020년 2학기에 HK+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통합의료인문학협동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 중 질병이나 의료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은 협동과정 수업을 함께 수강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이고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의료인문학협동과정 교육과정 개요>

번호	과목명	개요
1	의료인문학개론	의료인문학을 수학하기 위한 기초개념과 이론 강의
2	질병사례연구	특정유형의 질병을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의학의 다양한 맥락에서 고찰
3	질병의 이론과 역사	특정유형 질병의 이론과 역사를 고찰
4	공중보건의 역사	개개인 치료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보건을 지향하는 역사적 흐름을 고찰
5	문학과 의학	문학에서의 의학과 의학에서의 문학 등 의학에 대한 문학의 전반적 고찰
6	서사의학, 문학과 공감	질병서사체험연구
7	영화, 연극과 치유	영화와 연극을 소재로 한 질병서사연구
8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역사	의학의 이론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
9	의료사	의료에 관한 역사적 고찰
10	질병과 사회	질병을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고찰
11	질병과 치료란 무엇인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철학적 고찰
12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생명윤리와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연구
13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에 관한 철학적 고찰
14	의료와 정책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
15	북한보건의료체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연구
16	의료인이란 무엇인가?	의료인의 직업과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17	의료체계와 죽음	죽음의 의미를 의료체계의 맥락에서 고찰
18	의료와 종교	종교와 의료의 역사, 의료윤리와 종교의 관련성 고찰
19	동아시아 신체관	동양과 서양의 신체관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20	의학과 인문학교육	의대에서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연구
21	의료법 일반이론	의료법의 일반적 법리연구
22	의료법 특수이론	의료법의 특정 법리연구
23	의료법 절차법론	의료법의 절차법 연구
24	현대의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
25	의료와 법	의료 관련 법률에 관한 개관적 고찰
26	서양의학 고전 강독	서양의학의 발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고전 강독
27	한국근현대의료사	현대 한국의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
28	한의학 고전 강독	한의학 고전강독
29	전염병과 환경	전염병과 환경에 관한 연구
30	정신의학연구	정신질환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31	의학과 언어	의학 속 언어학적 대상(어휘, 번역, 사전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
32	시와 의학	시적 정서치료의 특성과 의학과의 만남에 대한 고찰

셋째, 기술 네트워크 문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술 네트워크 문제는 주로 고고학 전공에서 교육하고 있다.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술의 발달과 기술 네트워크의 형성이 인간의 삶과 생각, 그리고 물질문화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고민한다. 주로 <기술과 물질문화>, <선사고고학특강>, <석기론>, <수량고고학> 등의 교과과정에서 기술 네트워크 관련 문제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기술 네트워크 교육을 담당하는 고고학 전공교수는 2명이며 모두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한다. 이 중 한국선사고고학을 전공한 교수는 본 교육연구팀의 팀장으로 국제 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 전공교수는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한국의 고대 기술과 도시문명의 맹아에 관한 국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동북아시아 고고학 허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갖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선사와 고대사회에 대한 해석에서는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등 민족적(국가적) 차별과 갈등의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편향적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에도 엄존하는 불안요소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과거 사회에 대한 현재의 이념적 오도를 바로잡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고고학적 접근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문제를 <고고학과 현대사회>, <고고학사연구>, <현대고고학>의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 2 산업·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앞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이상의 정규 교과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도, 지역 사회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학문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와 현장 연수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현장 연수활동 협약체결기관>

구분	대상기관
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출판사	도서출판하우, 휴먼앤북스
기타	다음소프트, (주)비상교육, (주)유비원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산업현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위의 기관과 인턴쉽 프로그램(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 수료증 발급을 통해 향후 정식 취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이다.

글로벌 문명교류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회적으로 도시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시사와 관련이 있는 박물관과 국공립연구소,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시정책연구소, 도시/지역 발전연구소 등이 정책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시 현안

에 대해 역사적 안목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글로컬 문명교류사 전문 인력은 이 같은 연구직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차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현지조사(field-trip)를 실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이와 연계된 세미나를 실행할 계획이다. 연구소 외에도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진출해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자원의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예컨대 인천, 목포, 군산 등 개항 도시에서는 도시사 연구자들이 참여해 근대도시 유산을 문화정책이나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여했다.

그리고 근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박물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문화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박물관의 역할이 매장문화재 전시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사,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교육연구팀의 글로컬 문명교류사에 대한 인식과 고고학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이며, 이미 여러 졸업생이 관련 기관에 취업한 바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여러 국공립 박물관의 인턴쉽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의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장차 해당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교과과정의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의 산업·사회문제는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필요한 전문지식도 넓고 깊다. 따라서 한 대학원의 정규교육만을 통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키움 방식으로 진행하는 패널 디스커션(panel-discussion) 방식의 프로그램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연구주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여 이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패널 디스커션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는 전문가 초빙이 관건이다. 전문가에 따라 콜로키움의 수준과 교육효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은 실제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한다. 예컨대 도시문제에 관해서는 국토연구원이나 지자체 도시 관련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도시문제를 직접 다루는 현장 실무 전문가로 이론과 방법론적 고민이 주를 이루는 대학교육의 보완을 위해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 고고학 발굴 전문가 집단도 초빙하여 발굴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개발과 유적보존 등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셋째, 협력연구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통합의료인문학사업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2020년 2학기에 HK+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통합의료인문학협동과정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 협동과정에서는 질병·의료문제에 관해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이 통합과정과 연계하여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협동과정의 커리큘럼 중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이 깊은 <의료사>, <서양의학과한의학의역사>, <전통의학과현대의학>, <질병과사회>, <의학과인문학교유>, <한국근현대의료사>, <전염병과 환경>과 같은 교과과정을 본 교육연구팀의 전공과목으로 활용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순수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실천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학문적 수준도 높고 현실감각도 뛰어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 2.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 · 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17년	3	1	8	12
	2018년	6	0	1	0
	2019년	1	1	3	2
	계	8	13	7	3
배출 (졸업생)	2017년	0	5	X	0
	2018년	0	0	X	0
	2019년	0	2	X	4
	계	0	0	X	0

##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

구분	확보 방안
1	학부생 중심의 학회활동
2	학부생의 대학원 선입학 제도
3	대학의 연구소 사업
4	독립심화학습 프로그램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생 중심의 학회활동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할 것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에는 학부생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회가 있다.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고학회, 서양사학회, 탁본학회가 그것이다. 각 학회에서는 매 학기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주제 선정과 학습 진행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학회 활동을 통해 학부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전공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학부생의 대학원 선입학 제도를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에는 3학년 때까지 평균평점이 3.8점 이상인 우수한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을 미리 수강하고 학점(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과목 선수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석사과정에 진학하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예약입학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학사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연구소 사업을 통해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할 것이다.** 우선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2019년 5월부터 HK+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가치의 정립과 통합의료인문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는 2019년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실크로드의 정립”사업을,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일반공동연구’ 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서양 주요국의 인식 비교 고찰”사업을 수행중이다. 대학원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인력 확보와 배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독립심화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할 것이다.** 경희대학교에서는 2018년도부터 「독립심화학습(Independent Learning and Research)」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정한 주제에 대하여 교수에게 일대일로 지도를 받아 몰입하여 학습·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업에 대해 미리 체험케 한다면, 학생에게는 진로 선택이 넓어지고 교수에게는 후학 양성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020년 대학원에 입학한 서양사 석사과정생의 경우 4학년 때 러시아 과학기술사를 독립심화학습을 통해 학습하면서 관심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또한 한국사에서도 의료사를 주제로 독립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참여교수 5인 모두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 전문성, 우수한 교수법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연구팀은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 교과과정을 재정비하여 기존 강좌 외에 글로컬 문명교류사와 관련된 전공과목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육연구팀의 교육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글로컬 문명교류사’에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우수한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자 한다.

##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첫째, 대학원생 중심 소규모 학술모임을 지원할 것이다. 대학원생이 자율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비(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분야별 대학원생의 집단 세미나를 확대·발전시켜 대학원생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매 학기 월1회씩 연간 총8회의 교육연구팀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및 외부 전문가의 학술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제고할 방침이다.

둘째,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함께 발표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지원 및 학술대회 개최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함께 문명교류사에 대해 연구하며 교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은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연구방법론을 교수의 지도하에 실질적으로 체현하며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동연구를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학점이수, 공개발표, 논문제출자격시험, 출석 등 학사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지원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내규에 따라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청구 전에 석사과정생은 국내 등재(후보)지급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박사과정생은 등재지 또는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성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학원생이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영문 번역과 교정 작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본 교육연구팀 내에 영문 번역과 교정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논문에 대해서 관련 전공의 교수가 지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학술논문에 대해 연구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넷째, 대학원 과정 중 산업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는 전공 대학원생이 졸업 후에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내의 여러 기관과 MOU를 맺어 인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관련 기관의 실제 연구 교육 업무와 관련한 현장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19.2/2019.8 졸업한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 (D/C) × 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3	1	8	12	6	0	1		
	박사	0			1	1	3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2	8	13	7	3	0		5	
	박사	0			0	0	0			
계	석사	0	2	4	0	0	0		0	
	박사	0			0					

## 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 1 대학원생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2019년 2월과 2019년 8월 졸업생은 모두 석사 8명이며, 이 중에서 6명이 취업하였다. 졸업자 가운데 서양사 전공자 1명은 인천서구문화재단에 취업하였고, 고고학 전공자 4명은 문화재 관련 기관에 그리고 고고학 전공자 1명은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고고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박물관과 고고학 관련 연구소에 취업한 것은 전공 적합성에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졸업 후에 비전공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한 취업 실적이다.

### 우수사례 1 (서양사 / 2019.2 / 인천서구문화재단)

석사과정 졸업생 김○○은 인천서구문화재단에 재직하고 있다. 인천서구문화재단은 2018년 1월 출범한 비교적 신생 문화재단으로 서울에 비해 비교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인천 서구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지역 예술가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는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서구문화재단은 인천 서구 지역이 고유의 지역색을 찾고, 주민들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함과 동시에 스스로 창조해내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은 인천서구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사업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은 지방 분권화와 맞물린 1980년대 프랑스의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원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인천서구문화재단은 김○○ 석사의 관심분야와 연결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곳이자 차후 김○○ 석사가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기관이다.

### 우수사례 2 (고고학 / 2019.2 / 중앙문화재연구원)

석사과정 졸업생 안○○은 국내 매장문화재 전문 발굴기관인 재단법인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국내 발굴 법인기관 중에서도 손꼽힐 규모의 조직이며, 조사 인력의 수와 진행하고 있는 발굴사업의 규모 측면에서도 여타 기관들과 차이를 보인다. 현재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중앙아시아 해외 발굴사업 다수와 국내 발굴용역 다수를 실시하고 있다. 안○○은 경희대학교에서 북방고고학을 전공했다. 특히, 유라시아 초원과 한반도 고대 국가의 교류·상호작용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말갈 토기의 변화상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살려 중앙문화재연구원 취업 이후 국내 발굴용역뿐 아니라, 해외 발굴조사 사업 다수에 참여했다. 그리고 관련 성과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Asian Archaeology*,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와 고구려발해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 학술대회 등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해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발굴조사 기술과 인력의 교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졸업자와 같이 관련 이슈를 전공한 전문가를 매개로 과거 사회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욱 깊은 학술적 분석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관심 학문 분야에 기여한다.

### 우수사례 3 [고고학 / 2019.8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석사과정 졸업생 권○○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연구·조사·개발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7개 지방소 중 한 곳으로, 2019년 7월 신설되었다. 권○○은 고고학 중에서도 선사 및 역사고고학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고고학 연구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확대, 고조선 철기문화의 한반도 확산, 초기 마한 및 후백제 관련 조사·연구 등 전북지역 고유 문화권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의 주요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발굴 및 학술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에서 연구하였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학예사의 직능을 탐구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학교와 일반 기관이 진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발굴·보존·복원·활용에 이르는 복합적인 종합 연구를 담당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권○○의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곳이자 전공능력과 함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장이다.

### 우수사례 4 [고고학 / 2019.8 / 한성백제박물관]

석사과정 졸업자 윤○○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다. 윤○○은 박물관 본소에서 이관 유물등록 및 수장고 정리·관리 지원, 기증유물특별전 준비 및 박물관 사업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등록하는 업무와 소장유물 목록집 출간이 주요 업무이다. 유물등록의 경우 몽촌토성과 도봉서원, 청진동 유적 등 서울 역사를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다양한 시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업무 과정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천 년 역사 특질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박물관이라는 현장 특성상 이천 년 서울의 역사적 특질을 어떠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슈로 삼는다. 소장유물 목록집 출간의 경우, 고고학 전공자로서 2020년 기준 가야토기 목록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윤○○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며 북방고고학, 특히 부여의 성립과 교류 네트워크를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 사료와 물질자료,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재직 중인 박물관에서 중국 도자 및 기타 중국제 유물을 다루고 있으며, 해외 자료의 기증·위탁·위임유물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우수사례 5 (고고학 / 2019.8 / 시흥오이도박물관)

석사과정 졸업자 허○○은 시흥오이도박물관에 재직 중이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서해안 패총 중 가장 큰 오이도 패총을 중심으로 관련 유물과 시흥시 출토 매장문화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허○○은 고고학 중에서도 선사고고학(구석기시대)을 전공했는데, 오이도 박물관은 선사고고학을 연구·전시하는 곳이다. 국내 박물관 중 선사고고학을 주제로 한 박물관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오이도박물관 취직은 대학원에서의 연구역량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이도박물관은 외부 고고학 단체와 협업하여 학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술역량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직장이다. 이외에도 연구 외적인 학예직 업무를 배우는 데도 장점이 있다. 오이도박물관은 2019년 8월 개관한 신생박물관으로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학예연구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시흥오이도박물관은 허○○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전공 능력과 적합하고, 그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 우수사례 6 (고고학 / 2019.8 /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석사과정 졸업자 홍○○은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홍○○은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홍산문화의 제사체계를 전공했다. 이 주제는 현재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新실클로드의 정립’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홍산문화 제사체계는 오늘날 내몽골지역에서 등장하여 중국 내륙, 한반도 및 북방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기술체계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홍○○의 연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인 동시에 그의 개인 연구가 연구소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소의 장점은 연구소의 목표가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홍○○의 연구주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홍○○은 연구소 사업을 통해 북방지역 고고학 현장 발굴의 답사와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홍○○이 향후 홍산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이다.

## 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황재훈	2014.2	박사	사학과	N	박사, 경희대학 교 사학과	충남대학교 인문 대학 고고학과 조교수
졸업자는 2014년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 -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후 한반도 무문토기시대(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다양성과 사회복합화, 문화변동의 발생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고고학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	김선호	2016.8	박사	사학과	N	박사, 경희대학 교 사학과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연구원
졸업자는 2016년 『조선인민군 연구 - 창설과정과 통일전선』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의 조직 및 체제의 성격과 맥락을 군사(軍史)적 관점에서 종체적으로 분석하여, 한반도 분단체제의 형성 과정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는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3	조수룡	2018.8	박사	사학과	N	박사, 경희대학 교 사학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졸업자는 2018년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과정과 ‘자력 간생’ 경제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맥락에서 전후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그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로 재직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졸업생 수	석사	26	3
	박사	3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최근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	박사	조수룡	한국사	2018.8	저널논문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1(3), 204
						2018.12
2	석사	김종식	서양사	2018.8	저널논문	김종식
						알제리 해방 전후 프랑스-알제리 경제협력의 변화 연구
						Oughtopia
						33(3), 181
						2018.11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2	1
	박사	2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으로는 조수룡 박사와 김종식 석사의 연구논문이 있다.

조수룡 박사의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2018)는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말렌코프 ‘신노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재검토한 것이다. 전후 복구 3개년계획의 경공업 중시 방침은 조선로동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간의 통설로, 소련에서 등장한 말렌코프 ‘신노선’이 조선로동당 내 비주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이 연구는 1954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된 3개년계획에서 경공업 중시 방침은 당내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1953년 9월 북한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요구한 결과임을 밝혀내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통설로 받아들여진 1950년대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내부 정책 갈등에서 소련과의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와 경제구조의 형성에서 국내 정치적 맥락을 강조하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사회주의권 내 국제정치의 맥락으로 시야를 확장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47회 『현대북한연구』 논문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북한의 노선이 소련의 영향과 관계 속에서 노정되는 과정을 다룬 이 연구는 두 집단·지역의 ‘교류’와 그 영향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연결된다.

김종식 석사의 「알제리 해방 전후 프랑스-알제리 경제협력의 변화상 연구」(2018)는 프랑스-알제리 경제협력 체제의 형성 과정을 통해, 식민지 해방 이후 구 식민본국과 신흥 독립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조명한다. 알제리-프랑스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양국 간의 협력을 군사·문화·경제 등의 주제를 아우르며 포괄적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연구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반면 이 연구는 경제,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석유 자원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관계 형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두 국가가 식민지배를 매개로 묶여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처럼 두 문화권의 교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글로벌 문명교류’라는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다. 또한 프랑스와 알제리의 경제협력이 갖는 양면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사회적 불안 및 모순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한 사례를 조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식민지 경험 이후의 사회적 모순이라는,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② 대학원생(졸업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별도 제출/ 평가)

<표 2-5>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연구업적물 환산 편수

구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7년 2/8일 졸업생	2018년 2/8일 졸업생	2019년 2/8일 졸업생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1.0000	3.5000	2.0000	6.5000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1.0000	3.5000	2.0000	6.5000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0.9285
지도학생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7			

<표 2-5-1>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디자인영상 분야 창작물(전시회/공모전/ 영화제)  
출품 실적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7년 2/8일 졸업생	2018년 2/8일 졸업생	2019년 2/8일 졸업생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국내	0	0	0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국내	0	0	0
영화제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국내	0	0	0
총 창작실적 환산편수	0	0	0	0
평가대상 1인당 창작 환산편수				0.00
지도학생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7

### 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구 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석사	김태경	2019.2	구두	<p>김태경</p> <p>밀개의 형태 분석과 감쇄과정 - 임진 · 한탄강 상류 후기 구석기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p> <p>2019 한국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신진연구자 논문발표회</p> <p>1명</p> <p>2019.5, 한국 경상북도</p>
2	석사	허원영	2019.8	포스터	<p>허원영, 이한용, 김소영</p> <p>일본 규슈지역의 구석기시대 흑요석의 원산지 조사</p> <p>2019년 한국구석기학회 춘계학술대회 - 최근 구석기유적 조사 현황과 성과</p> <p>1명</p> <p>2019.6, 한국 서울시</p>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2
				박사	1
					2

###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최근 3년 간 본 교육연구팀의 졸업생 중 구석기 고고학 전공자 두 명이 우수한 학술대회 발표실적을 기록하였다. 먼저 구석기 전공자인 김태경은 2019년 5월 한국고고학회가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 발표회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하였다. 임진·한탄강 상류 유역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을 대상으로, 도구의 지속적인 감쇄 과정(reduction sequence)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밀개(end-scraper)라는 도구 형식은 역동적인 도구 감쇄의 과정으로 형성된 결과물이며, 잔존 형태가 반드시 도구 성형의 최초 목적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 유적마다 밀개 감쇄과정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사용된 돌감과 주변 돌감 분포지와의 거리에 따른 점으로 해석하였다. 본 발표는 한국 구석기고고학의 연구사적 화두인 ‘도구 기술과 형태변이’라는 주제를 감쇄과정이라는 행위체계의 맥락에서 탁월하게 해석한 사례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고고학보』 104호에 수록되었다. 이는 단지 구석기고고학에서 기술과 물질문화를 분석하는 진전된 성과일 뿐 아니라, 한국 고고학 전반에서 물질문화와 역동적으로 결부된 기술체계의 다양한 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석기 전공자인 허원영은 2019년 6월 한국구석기학회에서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일본 규슈지역의 흑요석 원산지 조사 성과를 성공적으로 발표하였다. 졸업자는 흑요석의 교류 네트워크 및 유통 범위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규슈 일대의 흑요석 분포지가 고시타케, 하리오지마, 요도히메, 히메지마 등 다수로 나뉘어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전곡선사박물관과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단일한 맥락에서 논의되던 규슈 출토 흑요석의 원산지를 세밀하게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 자연 상태의 흑요석이 원산지의 공간적 성격에 따라 다른 원석 형태나 크기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규슈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흑요석은 한반도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인 장흥 신복이나, 신석기시대 동·남해안 일대 유적에서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한반도·규슈지역의 활발한 교류 패턴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두 연구는 선사시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견 일반적인 의미의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쉬우나,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석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한반도와 일본 간에 교류 네트워크가 실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였다는 점에서, 선사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증명한 것으로 본 교육연구팀의 핵심 아젠다인 글로벌 문명 교류사의 가장 이른 페이지를 펼친 셈이다. 특히 허원영의 논문은 국제적 범위의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문명 연구사 대학원으로 성장한다는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비전과 부합하는 연구이다.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 1. 논문 작성 및 게재지원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가운데 2명은 2020년 1학기로 졸업 요건인 이수학점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논문 짐필에 힘쓸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학원생들이 보여준 성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학위취득 이전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지도 대학원생은 등재지에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연구지원을 받게 된다면 학술지 게재 논문의 편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68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는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그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 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 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 가운데 석사 수료 후 연구등록생과 박사과정생들이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2. 연수 및 학술활동 지원

대학원생들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사학과,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 중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그리고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해외 유관 기관에 대학원생들이 단기·장기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연구팀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국내외 학술발표와 연구연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동아시아권의 국제학술대회에 4인의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그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제공할 것이며, 유라시아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진행되는 연구연수와 고고학 발굴에 매년 2인의 대학원생을 참여시키고 그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할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은 국내 주요 관련기관에서 단기간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경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연구팀의 과제가 선정되고 대학원생 정원이 증원되면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내에 학술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사업 계획 2~7년차에 걸쳐 5개 소모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제고하고 우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 서양사, 고고학 분야별 대학원생의 집단 세미나를 확대 발전시켜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월 1회 씩 연간 총 8회의 **교육연구팀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및 외부 전문가의 학술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연구팀의 교육 및 연구 국제화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해서 우수한 계획서를 선정하여 해당 학생의 **장기 해외대학 연구연수, 단기 해외 사료조사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연구팀 운영 경비에서 참여 학생의 국내외 논문 게재비 및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다.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수년 간 다양한 연구용역과제나 연구비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에 있기에 **향후에도 여러 연구비 지원 과제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과제에 참여 대학원생을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시켜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며, 참여대학원생들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단독이나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학술발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소용되는 여비는 교육연구팀 운영경비에서 지원할 것이다.

## 4. 신진연구인력 운용

###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 4. 신진연구인력 운용

###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된 전공의 신진연구인력(이하 BK 계약교수) 1인을 BK 신진연구인력으로 임용하기 위한 공채 공고를 내고 경희대학교의 연구교수 임용절차에 따라 엄격한 학내외 심사를 거쳐 임용할 계획이다. BK 계약교수에게는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충분한 연구공간을 제공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논문게재료와 성과급, 국제 학술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BK 계약교수에게는 교육연구팀의 교육 및 연구 비전과 목표인 ‘글로벌 문명교류사’ 전문인력 배출과 연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학부나 대학원에 관련 강의를 배정할 것이다. 또한 교육연구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집담회를 통해 BK 계약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주제를 개발함으로써 연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BK 계약교수로 하여금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소모임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참여 대학원생과의 원활한 연구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보 및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사업에 선정되면 관련 전공의 신진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 1인을 BK 계약교수로 임용한다. 기본적인 임용 조건과 절차는 경희대학교 비전임교원 관련 규정을 따를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교육연구팀 내에서 정한다. 채용 일정은 사업 개시 직후부터 진행하여 아래의 4단계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채용을 완료하고 본 교육연구팀에 합류토록 할 계획이다.

채용 일정	채용 절차	내용
1주차	교원채용인사위원회 구성	학과 차원에서 교원채용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주차	후보자군 조사	KRI를 활용하여 신진연구인력 풀을 확인하여 후보자군에 대한 기초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3주차	연구역량 검토	후보자군 중에서 지원자에 한하여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된 복수의 인물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역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4주차	채용절차 진행	경희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과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BK 계약교수는 본 교육연구팀 내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 내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연구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BK 계약교수에게는 교육연구팀 차원, 학과 차원,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연구팀 차원

교육연구팀에서는 BK 계약교수가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BK 4 단계 사업의 규정에 맞춰 연 3,6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서구입비, 논문제재료 등 기본적인 학술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학술논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BK 계약교수의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할 것이되,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 2. 학교 및 학과 차원

학교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4대 보험을 지원하여 근로자 및 연구자로서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과 협의 하에 신진연구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할 것이다. 신진연구인력이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과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이 강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강의를 1강좌 이상 배정할 예정이다.

## 3 신진연구인력 활용계획

본 교육연구팀은 구성원 간의 연계활동과 연구활동의 활성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신진 연구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단 참여 구성원과의 연계활동

기본적으로 BK 계약교수에게는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와 학부 및 대학원생 간의 매개자 역

할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학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학원생들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여기에는 교육연구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집담회가 중심이 될 것인데, 참여 대학원생, 참여교수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주제를 개발하도록 하여 연구영역의 확장을 지원·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원생 및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교육연구팀 사업 진행 중에는 다수의 학술대회와 내부 세미나가 기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과 기획 및 조정 역할에서 BK 계약교수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 강의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교육을 체험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2. 연구활동 활성화 계획

이상의 연계활동 이외에도 BK 계약교수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서 개별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학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제학술회의 참여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를 적극 지원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개별 또는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게재, 도서 발간, 학회발표 등에 대한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률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성춘택	10048804	한국선사고고학	논문	2671-8847
<p>역사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구석기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6년 간행 당시 중고등학교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을 비판하고 올바른 내용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검토한 글이다. 역사교과서에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관련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유물명과 사진, 그림, 연대 등에서 잘못된 서술이 적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사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칫 역사교육에서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고고학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고, 고고학자가 더 적극적으로 후세 교육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학문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고등학교 역사교사와 몇 번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고고학이 역사교육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p>					
2	민유기	10118640	프랑스사	대학원 교과목 개설	
<p>참여교수는 2020년 사학과 일반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기존 &lt;독일사연구&gt;를 폐지하고 &lt;유럽사연구&gt;를 신설해, 2020년 1학기 대학원 사학과 과목으로 개설해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다. 독일사 전공교원이 없어 원활한 강좌 운영이 어려워 개설 가능 과목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8년 이상 개설이 되지 않았던 &lt;독일사연구&gt;를 폐지하고, &lt;유럽사연구&gt;를 신설하였다. 이 신설 과목에서는 유럽 근현대 문명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위해 과학기술의 성장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탐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유럽 근현대 문명의 연구주제를 사회사적 시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사학사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교과목의 목표로 설정한다. 이 신설 교과목 이수자는 이후 교과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lt;서양도시문명사&gt;, &lt;서양과학기술사연구&gt; 등의 더욱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며 문명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p>					
3	강인욱	10033783	동양고고학	저서	
<p>『북방고고학개론』</p> <p>참여교수는 몽골, 러시아, 중국 등에 소재한 다수의 해외 유관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생들 역시 주관 학회 및 현장학습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도서가 『북방고고학개론』으로, 참여교수의 기획 하에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 16명이 집필에 참여했고 그중 2인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이다. 이 도서는 지역적으로 우랄산맥 동쪽의 남부시베리아 지역에서 연해주를 제외한 동북부 초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기적으로는 초원의 유목경제에 기반한 문화구분에 따라 기원전 35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정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시공간 속에서 초원과 한반도만주 지역간의 문화교류를 다루었으며, 한국고고학계에 광역 문명교류의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자국중심적 시각을 탈피하고, 장차 고고학에 글로벌적 연구 시각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p>					

##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 1

## 외국 연구소 및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현황 및 계획

### 1. 인적 교류 현황

참여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일반공동연구(2016년~2019년) 및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의 학술활동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교수,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특강과 강연을 진행하였다.

일시	연구자/교수명	소속	강연 종류
2018.10.26	이이지마 와타루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전문가 초청 특강
2019.03.18.	Marc Simon Rodriguez	포틀랜드 주립대학	대학원 수업 특강
2019.10.23.	진정원	대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2019.09.30.	클레르 트랭	파리7대학(디드로)	전문가 초청 특강
2019.01.18.	Chritopher Bae	하와이대학	대학원 세미나
2020.01.06.	장용안(張勇安)	상하이대학	전문가 초청 특강
2020.01.06.	장중민(張仲民)	푸단대학	전문가 초청 특강
2020.01.17.	리전더(李貞德)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 2. 인적 교류 계획

본 교육연구팀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매 학기 최소 1명의 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대학원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회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제학술대회>에 “기존 의료인문학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초청강연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대학원생 초청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성명	소속	전공	특강 주제(가제)
일본	이이지마 와타루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의료사	글로컬 문명교류와 동아시아의 질병
중국	여신총	난카이대학	의료사	글로컬 문명교류와 중국의 전통의학
홍콩	해리 우	홍콩대학	의료인문학	동아시아의 전염병과 사회변화
영국	마크 해리슨	옥스포드대학	의료사	글로컬 문명교류와 말라리아

\* 2020.09.25.전후로 초빙할 계획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 해외학자 활용 계획 및 역할

경희대학교는 우수한 해외 학자를 International Scholarship 교수로 임용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영어 강의와 전공 세미나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 사학과에서는 지난 2018~2019년 하와이대학 인류학과 교수 Christopher J. Bae를 IS교수로 정식 임용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세미나 지도 및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본 교육연구팀이 향후 IS교수로 초빙할 수 있는 해외 저명학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	성명	전공	소속기관	국가	성명	전공	소속기관
일본	스즈키 아키히토	의료사	게이오대학	대만	류시용	의료사	대만중앙연구원
	후쿠다 마히토	의학사	나고야대학		장체자	의료사	대만중앙연구원
	와키무라 고헤이	경제사	오사카시립대학	미국	김선주	한국사	Harvard University
	마쓰다 도시히코	일본사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존 던컨	한국사	UCLA
중국	장다칭	의료사	베이징대학	영국	제임스 루이스	한국사	University of Oxford
	가오시	의료사	푸단대학		마이클 신	한국사	University of Cambridge
	장중민	의료사	푸단대학	러시아	V.I. 몰로딘	고고학	러시아과학원
	장용안	의료사	상하이대학		N.N. 크라딘	고고학	러시아과학원

### 3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성명	국적	전공	학위과정	졸업여부
유양(劉陽)	중국	중국중세사	석사	2020년 2월 졸업
양정야오(楊曾堯)	중국	조선후기사	석사	2018년 8월 졸업
왕싱카이(王星凱)	중국	중국근대사	석사	재학 중

본 교육연구팀은 우수 외국인학생의 유치를 위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치한 우수 학생은 학비 감면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 연수 현황과 계획

#### 1. 해외 연수 현황

연수기관	국가	연수기간	참여교수	참여 대학원생
가오슝대학	대만	2018.01.22.~2018.02.01.	강인욱	장정현
가오슝대학	대만	2019.01.21.~2019.01.30.	강인욱	임채원
가오슝대학	대만	2020.01.13.~2020.01.22.	민유기	이진섭, 김연수
캘리포니아대학	미국	2019.07.07.~2019.07.22.	민유기, 박윤재, 조정은	김윤옥, 최하현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2017.06.28.~2017.07.18	-	윤정하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2018.07.04.~2018.07.18	-	홍지혁, 윤정하

#### 2. 해외 연수 계획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대학원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연수 및 장기연수와 국제학술대회 발표, 단기연수를 계획 중이다.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체결을 계획 중인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연수에 참여, 혹은 해외 고고학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연수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매년 서구권 1인, 동아시아권 2인 등 총 3인에 대해서 최장 1개월까지의 체재비용과 왕복 항공권을 지원할 것이다. 단기연수의 경우 1년에 서구권 2인, 동아시아권 5인 등 총 7인에게 최대 4일의 체재비용과 왕복 항공권을 지원할 것이다.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단기간의 자료조사 및 발굴 작업을 위한 비용이다.

### III. 연구역량 영역

#### 1. 참여교수 연구역량

##### 1.1 연구비 수주 실적 (최근 3년)

<표 3-1> 최근 3년간(2017.1.1-2019.12.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목	수주액(천원)			
	2017.1.1.-2017.12.31.	2018.1.1.-2018.12.31.	2019.1.1.-2019.12.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65,368	151,382	1,416,489	1,733,239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5,500	5,500	0	11,00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348,847
참여교수 수			5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강인욱	10033783	동양고 고학	학술지논 문	강인욱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기술 무기제사		
				한국고고학보		
				106호, pp.46-75		
					URL 입력	
				2018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 이 글에서는 기존 문헌사의 연구에 경도되었던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고고학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동제련기술, 무기의 발달, 의례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예를 통하여 고조선의 성립과정을 고찰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고조선을 단순한 한국 고대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그 보편성과 동아시아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무기, 의례, 제사라는 보편적인 문명의 관점에서 고조선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문명교류사의 한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팀의 문명교류사, 한국선사고고학, 동양고고학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p> <p>③ 전공분야에의 기여도 문헌사에 경도된 고조선의 연구를 다양한 문명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자국의 형식학에 매몰되거나 무비판적인 해외의 연구방법을 도입했던 기존 고고학계의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p>						
강인욱	10033783	동양고 고학	저서	강인욱		
				유라시아 역사 기행		
				민음사		
				8937431998 (pp. 1-332)		
					URL 입력	
				2015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 이 책에서 참여교수는 4대 문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사의 발전을 이끌었던 초원에 ‘제5의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 수천 년간 왜곡되고 천대받았던 초원의 역사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단편적으로만 제시되어 온 초원과 한반도의 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방 이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됐지만 분단과 이념적 장벽으로 북방 지역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에 유라시아 문명과 한반도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글로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이다.</p> <p>③ 전공분야에의 기여도</p>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세계 각지에서 초원 지역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고, 이념적 물리적 장벽이 허물어져 이 지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자유로워진 지금, 수십 년 전 제기된 북방 기원론 대신에 한반도라는 로컬과 유라시아 문명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실증할 연구이다.						
민유기	10118640	프랑스 사	학술지논문	민유기 68운동 이후 프랑스 사회당의 문화민주주의 정책 구상 서양사론 141호, pp.46-77 2019	URL 입력	
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 이 글은 68년 혁명적 상황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사회당이 70년대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프랑스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68년에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소외와 이로 인한 일상의 지겨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획들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의 대중적 확산,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문화의 지방분권화 등 다섯 개의 주요 영역에서 제시되었고, 81년 대선 승리 이후 이를 실현해나갔다. ③ 전공분야 기여도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추구와 문화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로, 연구재단 중견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연구성과로 KCI 우수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민유기	민유기 10118640	프랑스 사	book chapter	민유기		
				시민의 민주적 숭배와 기억의 정치, 파리 문화예술인 동상		
				서해문집		
				9788974838836		
				2017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참여교수가 기획, 편집하고 대표저자로 출간한 저서 &lt;도시는 기억이다&gt;의 북 챕터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파리의 문화예술인 동상 건립 봄을 통한 기억의 정치와 문화예술 그리고 문명에 대한 민주적 숭배문제를 고찰한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도시의 다양한 공공기념물은 가시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무수한 상징과 기호들을 표상하고 재현한다. 어떤 행위 주체가 공공기념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건립하고, 평가하고, 전유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와 기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선까지 공공성과 개방성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 줄 수 있다.</p> <p>③ 전공분야 기여도</p> <p>참여교수가 설립한 도시사학회에서 펴내고 있는 도시문명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연구 출판된 책으로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p>						
박윤재	박윤재 10004194	한국근 대사	학술지논 문	박윤재		
				19세기 말-20세기 초 병인론의 전환과 도시위생		
				도시연구		
				18호, pp.7-30		
				2017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이 글은 한국 방역정책의 형성과정에 병인론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방역정책은 즉흥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속적, 계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한국근대사의 변화과정과 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이 글은 방역정책의 인식적 기반을 밝히고 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지금까지 의료에 대한 접근은 제도나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상적인 접근이 주로 이루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의료라는 현실적 문제를 이론적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p> <p>③ 전공분야 기여도</p> <p>방역은 현재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 이 글은 방역이라는 실천과 그 기반이 되는 인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현실적 의미가 있다. 역사학에서 의료사 연구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 글은 의료를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함으로써 의료사상사의 토대가 될 수 있다.</p>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박윤재	10004194	한국근 대사	학술지논 문	박윤재		
				위생에서 청결로 - 서울의 근대적 분뇨 처리		
				역사비평		
				126호, pp.260-280		
				2019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이 글은 위생의 문제였던 분뇨가 처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결의 문제로 이동했음을 밝히고 있다. 위험한 경계의 대상에서 더러움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다. 과학기술은 실생활에 상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동반하지 않는 한 그 위험의 현실적인 제거는 불가능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이 글은 과거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학의 현실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③ 전공분야 기여도</p> <p>그동안 한국 역사학은 근대화의 과정을 정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최근에는 근대화가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사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근대화의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뇨처리 문제 분석을 통해 사회사 연구의 영역을 확대시켰다.</p>						
성춘택	10048804	한국선 사고고 학	저서	성춘택		
				석기고고학		
				사회평론		
				9791188108121		
				2017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석기고고학』은 한국 선사시대의 가장 흔한 고고 유물 석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연구성과를 개괄한다. 선사시대 석기를 이론과 방법론적인 틀에서 분석하고 한국 선사시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한국고고학에서는 시대별 전공의 성격을 강조하여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을 망라한 종합 연구가 드물다. 『석기고고학』은 석기라는 고고 자료와 관련해 정의, 분류, 제작과정, 편년, 사용과 기능, 행위적 맥락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했다.</p> <p>③ 전공분야 기여도</p> <p>『석기고고학』은 한국 고고학에서도 드문 선사시대 고고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슈를 이론과 방법론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출간 직후 학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p>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선정되었고, 2019년 11월 해마다 열리는 한국고고학회 전국대회(제43회, 충남대학교)에서 삼불학술상을 수상했다.						
성춘택	10048804	한국선사고고학	book chapter	돌을 다듬다: 문명의 시작 돌녘 9791159254871 2019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 본 저술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저술에서 “문명”의 성장을 지나치게 역사시대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실제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된 도구로 쓰인 석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본 저술은 인류문명의 기술을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서 보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흙요석기에서 반달돌칼(반월형석도), 간돌검(마제석검)에 이르기까지 한국 선사시대의 여러 석기의 발달을 동아시아의 교류네트워크의 축면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고자 하여 글로벌 교류를 강조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에 부합한다.</p> <p>③ 전공분야에의 기여도 구석기시대 뗀석기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여러 간석기의 제작과 사용은 단순히 원시적인 삶의 형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놀랄 정도로 정교한 기술과 함께 광역의 교류망과 사회적 맥락에 얹혀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p>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조정은	10167562	중국근 대사	학술지논 문	조정은		
				의료선교사의 중의학에 대한 인식: 박의회보(博醫會報)를 중심으로(1887-1932)		
				의사학		
				24권 1호, pp. 163-194		
				2015		
				<a href="http://dx.doi.org/10.13081/kjmh.2015.24.163">http://dx.doi.org/10.13081/kjmh.2015.24.163</a>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이제까지 의료선교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의료선교사가 중국에서의 서양의학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주목한 것으로, 의료선교사의 중의학 인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의료선교사의 중의학에 대한 인식의 복잡한 양상을 다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문화의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문명교류사의 한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근대의학의 매개자 역할을 한 서양인 의료선교사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동서양의 의학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연구팀의 의료사 및 의학 문화 교류사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p> <p>③ 전공분야에의 기여도</p> <p>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서양의학의 토착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p>						
조정은	10167562	중국근 대사	학술지논 문	조정은		
				협력과 대립 : 근대 중국 서의계(西醫界)의 파벌문제		
				의사학		
				25권 2호, pp.241-272		
				2016		
					URL 입력	
<p>① 업적물의 창의성과 혁신성</p> <p>서양 근대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의 대립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중국 근대 의학계를 고찰한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근대의학을 배운 의사들 사이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서양근대의학을 둘러싼 동서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의료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p> <p>②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와의 부합성</p> <p>의료의 측면에서 글로벌 문명교류사의 한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중국의 서양근대의학 수용과정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의학문화교류를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인의 반응은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연구팀의 의료사 및 의학교류사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p> <p>③ 전공분야에의 기여도</p> <p>서양근대의학이 중국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경험</p>						

## 1.2 연구업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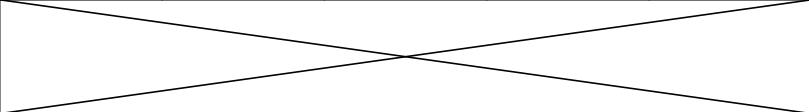
###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을 지닌 한국사나 일본사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② 참여교수 학술지 논문및 저서 실적의 우수성 (별도 제출/ 평가)

<표 3-3>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분야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실적 (별도 제출/ 평가)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8.5	7.913300000 000004	9	13.5333	6.5	45.4466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6	4.625	3	0	0	13.625
기타국제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1	0	0.2857	0.2857	0	1.571400000000000 1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3	0	3	0	0.75	6.75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0	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18.5	12.53830000 000001	15.2857	13.81899999 9999999	7.25	67.393
참여교수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13.4786
참여교수 수	5					

<표 3-3-1> 최근 5년간 디자인영상 분야 창작물(전시회/공모전/영화제) 출품 실적  
(별도 제출/평가)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 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영화제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총 창작실적 환산편수		0	0	0	0	0	0
1인당 창작 환산편수							0.00
참여교수 수							5

④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성춘택	석기고고학	사회평론	2017
<p>참여교수(팀장 성춘택)는 한국선사고고학과 고고학이론과 관련해 다양한 논저를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전문서적을 집필 및 번역해 출간해 왔다. 이 가운데서도 2017년 발간한 『석기고고학』(사회평론)은 연구자의 학문적 수월성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한국 선사시대의 가장 혼란 고고 유물인 석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연구성과를 개괄하고 있다.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같은 구석기시대 뗀석기(타제석기)는 물론 돌도끼와 간돌검(마제석검), 돌화살촉(마제석촉) 같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간석기(마제석기)에 이르기까지 석기 분석과 관련한 이슈를 이론과 방법론적인 틀에서 개괄하고, 한국 선사시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실제 한국고고학에서는 지나치게 시대별 전공의 성격을 강조하여,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물을 망라한 종합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별 장벽을 넘어 석기라는 고고 자료와 관련해 정의, 분류, 제작과정, 편년, 사용과 기능, 행위적 맥락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했다.</p>				
1	<p>한국 고고학에서는 지나치게 시대별 연구가 강조되고 있지만, 본 저술은 구석기시대 뗀석기는 물론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여러 석기를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읽는 이는 한국 선사시대의 석기기술의 진화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선사시대 석기기술이 이후 한국의 금속문명의 토대가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밝힌다.</p> <p>『석기고고학』은 한국 고고학에서도 드문 선사시대 고고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슈를 이론과 방법론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본 저술은 출간되자마자 학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19년 11월 해마다 열리는 한국고고학회 전국대회(제43회, 충남대학교)에서는 본 저술을 토대로 참여교수가 권위 있는 삼불학술상을 수상했다. 본 저술은 석기라는 고고 자료의 연구방법뿐 아니라 한국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지식을 줄 것이다.</p>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	발행연도
	박윤재	Commercialization of Medicin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in Korea	Korea Journal 55-2	2015
이 글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의료의 상업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의료의 성장이라는 구체적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내재적 발전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료는 개항 이후 수입된 서양의학을 통해 변화, 발전해나갔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영향이나 개입은 조선 후기부터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강화,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기 한국 의료의 실천과 관련하여 인술이라는 개념이 형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인술이 지배적인 사회적 공감대로 인정받는 가운데 의료의 상업화 역시 진행되고 있었다. 약재의 생산, 판매, 구입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약령시는 주요한 공간이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일기류에 근거할 때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양반층은 약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의료의 판매를 통한 이익 추구를 당연시하는 시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신분질서가 동요하였고, 그 결과 몰락양반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적 의료인으로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서양의학은 그동안 전통적인 한의학이 치료하지 못했던 외과학, 안과학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개발된 약재도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였다.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서양의사들은 인술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환자들이 인술을 빌미로 정당한 이익 추구를 부당하게 비판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술과 연결되는 의료행태는 지속되었다. 주체는 의료선교사, 식민권력이었다. 의료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가 행해지고 있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방법으로 의료는 유효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식민권력이 세운 자혜의원 역시 이름이 그렇듯이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주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감을 약화시키는데 의료는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선교사나 식민권력 역시 점차 무료진료의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선교사들은 더 이상 무료진료를 진행할 필요성이 적어졌고, 식민권력이 설립한 도립병원 역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의 상업화는 불가피한 방향이었다.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근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익의 추구는 의료 분야에서 주요한 경향으로 자리잡아갔다.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	발행연도
	민유기	프랑스 낭트 낭트 섬의 지속가능 도 시재생	세계의 지속가능 도시재생 (국토연구원, 2018)	2018
<p>참여교수가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사업에 선전되어 진행한 공동연구의 성과로 출판한 저서이다. 이 저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외 주요 산업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면서 중앙정부와 시정부, 공공 혹은 민간 기업들, 도시/지역민,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도시재생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서 쇠락한 산업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도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공학적 디자인적 요소뿐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 서유럽과 미국, 중국의 쇠락한 산업도시 일곱 곳을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p>				
<p>3 참여교수가 집필한 북 챕터는 폐쇄된 조선소 유휴 산업시설과 부지에 대한 낭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고찰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인 대서양서안광역도시정비공사 주도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뒤틀어진 조선소는 조선소공원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되었고, 주변 공장들은 창조지구 클러스터로 탈바꿈되었다. 이를 통해 쇠락한 산업도시로 인식되던 낭트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변모하였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낭트시의 재생사업과정은 오랜 심사숙고와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 문화예술 창조산업 분야의 발전, 산업 유휴지의 재생을 넘어선 도시 전체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의 연계,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p>				
<p>우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의 해소,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현실에 적극 반영하고 적용하는 사업으로 쇠락한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번영을 누리던 산업도시들에서 많은 산업체가 탈산업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도시의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글로컬 도시문명에 대한 학문적, 교육적 유용성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 2018년 7월 제4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에서, 같은 해 10월 한에종 건축과에서 책의 내용에 관한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2019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발간하는 잡지 &lt;도시재생 뉴딜&gt;에 책의 내용과 관련한 칼럼이 실리는 등 책이 학술적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p>				

## 1. 참여교수 연구역량

### 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 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 1 연구의 비전과 목표 달성 방안

#####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

5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실행과제
1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1) 글로컬 문명교류사 저술 출판 2) 연구-교육의 양방향 피드백 확대
2	중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4) 연구성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
3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5) 교육연구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6) 연구성과의 대중화·실용화 연계 강화
4	연구 협력체계 강화	7) 타분야와 정기적 학동콜로키움 개최 8) HK+ 등 대형연구사업과의 협력 활성화
5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9)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10) 국제공동연구 수행

비전과 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총 5인의 참여교수를 고고학 교수 2인과 역사학 교수 3인으로 구성하였다. 고고학 전공 교수 2인의 세부 전공은 각각 수렵채집사회의 물질문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동아시아 문명이다. 그리고 역사학 전공 교수 3인의 세부 전공은 각각 한국 근대의료사, 중국 근대의료사, 서양 근현대도시사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5인의 연구 영역은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 수행에 최적화된 연구진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5인과 대학원생 전원은 “연구중심 대학원 운영”을 위해 5대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하였다.

##### 전략 1.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

###### 1) 글로컬 문명교류사 저술 출판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인류문명의 역사적 발자취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인류문명의 기원과 발전, 쇠락과 재생 전 과정을 글로컬 비교사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에 관한 저술을 펴낼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 팀장은 그동안 많은 저서와 번역서를 발간하였는데, 『빙하 이후』 같은 학술서를 번역했으며, 『한국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2019, 공저)를 4인 공동으로 출판하여 현재 인류문명의 토대를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찾으며, 수많은 변화의 맥락을 진화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이 이슈를 더욱 분명히 하여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즐겨 읽을 수 있는 저술을 발간할 것이다. 현재 『사

피엔스 혁명: 빙하시대 수렵채집민의 유산을 찾아서』(가칭)와 같은 제목의 책을 계획하면서 자료 조사와 저술을 진행 중이다. 그리하여 높은 석기기술과 바늘 같은 정교한 뿔과 뼈 도구, 그리고 비너스상과 동굴벽화가 말하는 예술과 상징행위 등을 보면 행위적이고 문화적으로도 현재 인류문화의 토대는 혹독한 빙하시대 환경을 이겨냈던 현생인류에서 찾을 수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글로컬적 시각에서 도시문명에 관해 검토한 저서도 꾸준히 출간해왔다. 『무방비도시』(2015)를 번역한 바 있고 『도시는 기억이다』(2017, 공저), 『세계의 지속가능 도시재생』(2018, 공저) 등이 있다. 이러한 논저들을 통해 도시 내의 여러 갈등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세계 여러 도시문화의 교류를 다룬 『네트워크 세계사』(가칭)가 2020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서양과 동아시아의 문명교류를 의료라는 주제 속에서 살펴본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2015, 공저)도 있다.

## 2) 연구-교육의 양방향 피드백 확대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성과가 교육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교육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는 사학사특강이나 사상사특강과 같은 다양한 특강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수의 연구성과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특강 과목을 통해 교육으로 환원된다.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특강 과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HK+ 사업이나 대학중점연구소 등과 같이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가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많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에 대학원생이 대거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성과를 접하고 전공 분야의 여러 방법론을 익히게 된다. 이렇게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서도 연구-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또 학부과정에서 정규교과 외에 별도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최신 연구성과가 대학원생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신의 연구성과가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 2. 중장기적 융합연구 수행

### 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 “글로컬 문명교류사”는 지역적, 시기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하는 주제도 다양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는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에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본 BK 사업이 이어지는 2027년 8월까지 연차별 연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미 개별 참여교수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한국근대의료사 전공 교수는 이제까지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의료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탐구해왔다. 앞으로는 시대를 현대까지로 넓혀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문명교류와 의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근대의료사 전공 교수는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에 맞춰 의학지식의 문명사적 교류를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도시사 전공 참여교수는 도시사와 의료사의 성과를 결합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공중보건 협력의 역사를 연구하여 관련

저서를 집필할 예정이다. 또 냉전기 데탕트와 긴장완화에 관한 유럽의 인식, 프랑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한 문명의 상호적 발전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한국선사고고학 전공 참여교수는 현재 인류 문명사회의 토대가 후기 구석기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문명교류의 매개가 되었던 물질과 기술의 진화를 더욱 분석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동양고고학 전공 참여교수는 유라시아 초원을 중심으로 동서 문명교류의 역동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참여교수 개개인의 개별적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공동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문명교류의 흐름을 주제별, 시대별, 지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문명교류학을 정립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4) 연구 성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

최근 학계에서는 연구성과를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전공 특성을 고려해 평가계열을 세분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해 공정평가에 기반한 등급을 세분하면서 질적 연구가 선호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학계의 연구 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여,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합리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본부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한 교원에 대해 ‘조기 승진제’나 ‘조기 정년보장제’와 같은 우수교원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대학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수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 전략 3. 연구윤리 강화와 사회공헌

#### 5) 교육연구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본 교육연구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연구팀에서 도출된 연구성과에 대해 엄정히 심사하여 표절이나 부정인용 등의 문제가 없도록 연구 윤리를 강화할 것이다. 심사 분야는 비단 연구의 내용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연구비의 부정·집행 역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비 회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관리하여 부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는 대학원생 대상 연구 윤리 교육도 진행할 것이다. 연구 윤리의 중요성은 대학원 재학시절부터 강조해야 한다. 정기·비정기적 교육을 통해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특강을 통해 잘못된 사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 6) 연구성과의 대중화·실용화 연계 강화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성과의 대중화 및 실용화가 곧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본다. 즉 대중과 전문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관점에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5인은 비단 학문후속세대 양성뿐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한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고고학 전공교수 1인은 서울대학교 최고 인문학과정과 국방대학원,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에서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수차례 특강을 진행하였고, 도시사 전공교수 1인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에만 총 6회에 걸쳐 글로컬 여성사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강연했다. 또한 의료사 전공교수 2인은 HK+사업의 연구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인 문학센터에서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인문학과 몸에 관한 시민강좌를 진행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강연을 확대하면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하고 실용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각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민강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의 지역인문학센터와 서울 동북지역 지자체(평생교육기관 및 도서관)가 협력하여 연중 실시할 예정인 시민강연에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 경희대학 학생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오는 인문학 강연’과 병원의 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시민강연을 통해 글로컬 문명교류사의 중요 주제인 의료문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민강좌의 강연 내용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추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로도 출간하고자 한다.

#### 전략 4. 연구 협력체계 강화

##### 7) 타분야와 정기적 합동콜로키움 개최

본 교육연구팀이 속한 학과는 이미 학내 부설연구소와 타 연구사업을 통해 다학문적 교류·협력 역량을 입증해왔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IKAA)에서는 현재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국내 연구자뿐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를 초빙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또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에서도 십여 차례의 전문가초청 특강 및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연구팀의 참여교수진과 대학원생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글로컬 문명교류사”의 측면에서 교육·연구역량 강화로 이어갈 것이다. 특히 역사·고고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론을 함양하기 위해 국내·해외의 유수한 학자를 초빙해 합동콜로키움과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위생,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의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술적 이슈를 공유한다. 이로써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대주제 속에서 본 사업연구팀의 대학원은 세부 주제에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한 수준 높은 연구진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8) HK+ 등 대형연구사업과의 협력 활성화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이 깊은 연구소로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과 경희대학교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가 있다.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과는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 예컨대 도시위생과 공중보건의 지역적 국제적 확산 과정에 관한 공동연구가 가능하다. 의료사, 의철학과 의료윤리, 의료문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진과의 정기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통한 얻을 수 있는 전문가 리뷰 등을 연구 목표 달성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HK+ 연구단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의료사 연구소인 옥스퍼드 웰컴 의료사연구 센터 및 중국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한편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와 연계하여 프랑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문화 교류와 문명의 상호 발전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 전략 5.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 9)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본 교육연구팀의 모체인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는 해외 우수학자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해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샌크라멘토)을 비롯, 6개국 7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고, 2019년 이후 해외 학자를 초청해 일곱 차례의 특강을 진행했다. 본 교육연구팀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와 HK+ 연구단이 확장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우수 학자 및 기관과의 교류를 정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역량이 충분하다. 본 교육연구팀은 일본 도쿄대학, 러시아과학원 극동고고역사연구원, 독일 튜빙겐대학 등 동·서양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 우수학자들을 초빙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과 연구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문명교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계획이다.

### 10) 국제공동연구 수행

“글로컬 문명교류사”라는 아젠다는 많은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본 교육연구팀장은 인류문명의 교류네트워크의 형성과 변천을 연구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가령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흑요석기는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직선거리로 500km가 넘는 백두산을 산지로 한다는 것이 여러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직접 원석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직간접 교류네트워크를 이용해 먼 곳에서 재료를 얻었을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장은 광역의 교류망을 바탕으로 한 당시 수렵채집민의 석기기술과 유물군의 다양성과 교류권, 그리고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르는 장기간 인구의 변동 등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것이다. 특히 하와이대학의 크리스토퍼 배(Christopher Bae) 교수와 서울대학교의 김장석 교수 등과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현재 “전쟁과 여성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언론들을 역사적 반응과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사학과 대학원생들 역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위안부 문제를 동아시아에 국한시키지 않고 글로컬적 시각과 젠더사의 맥락 안에서 읽어내고자 하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 이러한 연구를 진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을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했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전문가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저널에 논문투고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사 전공 참여교수 2인은 HK+ 사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옥스퍼드 웰컴 의료사연구센터 및 중국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의 의료사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근대의료사 전공의 참여교수는 이미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에서 편찬하는 『의료사회사연구』의 국제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HK+ 사업의 일반연구원이면서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인 3인은 10월 상하이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인 의료사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공동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 활동

시민과 전문가가 공론장에서 만나는 것은 오늘날 역사적 갈등이나 차별 및 혐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 팀구의 범위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 모든 시기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고대사·고고학 분야에서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은 2019년 한 해에만 서울대학교 최고인문학과정과 국방대학원,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한 바**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향신문 등 신문사 주최로 열리는 대중강연 및 시민강좌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하거나 “발굴왕” 유튜브 영상에 참여하는 등 더 많은 청중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류(또는 사피엔스)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는 식민사학과 고고학, 고대사의 왜곡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새로운 역사적 관점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여러 주요 신문사들에 칼럼을 집필하는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지식의 재생산 및 확산,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은 **오늘날 사회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문제나 의료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다져왔고 연구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3월, 9월, 12월 3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문화초청특강의 일환으로 대중들 앞에서 도시문명의 형성, 도시의 갈등형성과 해소, 도시재생 문제 등을 강연했고 2017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도시인문학 초청강연을 2회 수행한 바 있다. 또 HK+통합의료인문학사업단을 통해 2019년 근대의료의 역사와 의료인문학, 의료문제 등을 대중들에게 강연해왔다. 이외에도 2017년 수원 쉬즈메디 병원, 2018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2019년 성공회대와 마포중앙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에서 시민들과 함께 오늘날 발생하는 여러 현대사회의 문제와 갈등 등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서양과 타지역 간의 문명교류는 물론, 갈등과 제국주의나 식민지 지배 문제에 관한 국제교류사나 정치문화사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과거사 청산 문제, 세계시민적 보편적 인권옹호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관한 보다 민주적인 시민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교수들은 2017년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초청으로 프랑스 68혁명에 대해 특강을 한 바 있고, 2019년에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프랑스의 알제리전쟁 기억과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또 한일 간의 대표적인 과거사 청산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양 주요국의 인식을 비교 고찰하는 연구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9년 총 6회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글로벌 여성사의 시각에서 특강을 기획해 진행하였다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지식의 재생산과 확산 외에도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일례로 기억과 추모 문제와 관련해 안산의 세월호 기억을 위한 공공기념물과 추모공원 건립활동 등에 도움을 달라는 안산시민단체 연합체 <4·16안산시민연대>의 초청으로 2018년 7월 “세월호를 기억하는 안산을 위한 제언”특강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기억과 추모의 역사적 접근을 논의하고 지자체와 시민들을 망라하는 지역사회가 최선의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러한 연구진과 시민단체 간의 연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교수들의 위와 같은 노력은 강단과 연구실을 벗어나 시민사회와 쌍방향적으로 교류하고 교감하며 지식인의 참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진들은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강연은 물론 방송사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한편 전문지식을 정부와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우선 고고학과 고대사 분야에서 참여교수들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참여교수 중 1인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매장분과)으로서 문화재 정책과 개별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 활발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지정문화재와 현장 또는 이전 복원하여 보존된 문화재에 대해 수차례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019년에도 고려문화재연구원, 격례문화유산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문화재 시·발굴조사 현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모니터링에도 참여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민족 고대 문화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교수는 카자흐스탄의 황금유물 조사, 중국 신장성 실크로드 지역에 사전 책임위원(고고학 분야),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번역 및 감수, 고고연구실의 카자흐스탄 사카문화의 고분발굴 자문 등으로 활동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전시에 있어 감수 및 논고작성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연구진들은 2015년 한국유네스코의 실크로드 문화유산 조정회의, 2016년 한국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교육, 2019년 외무부 유라시아과 특강 등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참여교수의 경우 도시사, 국제교류사, 정치문화사 등을 연구하면서 2015년부터 국회 의장 직속 국회 인성함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년간 활동했고 그 결과물로 『인성 보감: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인성교육 길잡이』 공저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갈등의 양상을 해소하고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인성교육의 24개 주요 덕목이자 가치를 제시한다. 아울러 이 가치와 덕

목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등 도시사회의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2015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시장 직속 서울 역사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의 역사도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물은 백서로 출간되어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출간된 『무방비도시』는 뉴욕의 도시재생과 도시사회 갈등의 양상 및 해소과정에 대한 세계적 석학 중 한 명인 주킨(S. Zukin)의 저서를 번역하여 출간한 것으로 한국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로 기능했다. 또 2017년에 국토연구원의 학술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결과로 2018년 『세계의 지속가능 도시재생』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널리 읽히며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 산업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연구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시민사회와의 교류와 자문활동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연구팀 참여교수들은 끊임없이 연구와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서양의 도시문화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하여 도시사회 갈등 해소와 도시문화 발전, 글로벌 도시 문명의 지속가능한 교류 등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참여교수가 대표저자로 참가해 출간한 『도시는 기억이다』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공기념물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들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의 관련 역사경험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참여교수는 최근 5년간 적극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 주제들은 주로 민주주의, 불법 체류자 인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다. 2018년 발표한 논문 「프랑스 68운동과 한국 ‘촛불항쟁’ 이후의 민주주의」, 2019년 발표한 「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과 같은 논문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신장과 불법체류자나 난민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2018년 발표한 논문들인 「프랑스의 피임 자유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과 해소(1956–1974)」, 「68년 이후 프랑스 여성운동과 낙태 합법화」 등은 우리사회의 낙태 허용 문제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련 갈등의 해소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다 나아가 교육연구팀은 의료인문학과 도시위생사라는 새로운 분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자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근대사와 중국근대사를 전공한 참여교수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현대 한국의 도시 위생: 기술, 의료, 역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표는 위생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공간인 도시에 주목하여 근현대 한국 도시의 위생 문제를 분석하고, 근대 도시위생의 양상이 현대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 혹은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위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로 근현대 한국 및 근대 중국 도시위생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모아 1~2년 안에 연구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도시위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도시위생은 오늘날에도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민가를 중심으로 위생시설의 미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 역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 종사자 감소로 문제를 겪고 있다. 더불어 식민지시기 근대화의 어두운 측면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도시사회에서는 그러한 양태가 고령 인구와 빈민들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 항생물질 및 예방백신의 개발과 도시환경 위생의 개선, 방역체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염병이 잇따라 도시의 생활을 크게 위협한다. 둘째, 위생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복지에 해당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개인의 위생 개념이 널리 퍼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대처가 가능해졌다. 도시는 방역의 실험장이자 체험장이 되었고 도시에서 성공한 방역은 주변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숙해갔다. 이 과정에서 위생이라는 복지는 상류층에서 민중으로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21세기의 상황에서 근현대 도시에서 위생이 어떻게 실천되고 정착되었는지 그 적용에 있어 어떤 논리와 문제가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의료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방역과 위생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체계화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스, 메르스, COVID-19와 같은 전염병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역사성을 확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 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도시사, 국제교류사, 정치문화사, 의료사 및 기술문명의 진화와 네트워크 등을 ‘글로컬 문명교류사’ 아젠다에 부합하도록 연구하면서, 현대 문명사회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계획이다.

첫째, 글로컬 근현대 도시문화의 확산과 교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내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여러 지방의 도시가 침체·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세계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장단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는 국제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알맞은 접근법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에 관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시민 등 여러 행위주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도시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도시위생·공중보건의 역사와 지역적, 국제적 확산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도시문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도시에서 퍼지고 방역정책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방역의 힘은 의료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의료가 펼쳐지는 공간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일례로 오늘날 전 세계적 판데믹을 일으킨 COVID-19에 대해 서구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같은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인식과 반응, 나아가 실질적 대응은 다르며 이러한 지역적 대응과 반응의 차이와 동시에 국제적 연대 등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사회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글로컬 문명교류’ 아젠다에 맞춰 한국이라는 지역적 단위와 국제적보건협력이라는 양 분야를 모두 아울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사는 과거 한국의 방역경험을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방역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처럼 방역이 의료인의 역할을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시되는 시점에 그 이해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신종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최근 상황은 그 이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일한 대처와 정보의 은폐가 전염과 불안을 확산시켰고 극단적인 봉쇄 정책이 피로와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일은 역사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보건협력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19세기 중반 처음 시작된 국제보건협력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발생한 스페인독감에서 비롯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이라는 판데믹의 경험은 국제연맹 산하 국제보건협력기구의 탄생으로 연결되었다. 전 세계적 공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조직되면서 WHO라는 단일 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WHO는 저개발 국가의 공중보건 개선과 신형 감염병 예방에 많은 활동을 경주했으나 강대국에 휘둘리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국제보건협력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셋째, 남북한 데탕트와 긴장완화에 관한 유럽의 인식을 글로컬 교류사의 시각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남북한 사이에 처음으로 합의한 통일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와 이에 대한 세계의 반응과 인식에 관한 것이다. 특히 7·4남북

공동성명 발표 전후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냉전 시기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한 국가였기에 외교문서들과 대표적인 언론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초중고 및 대학의 서양현대사, 한국현대사 및 한국사회 관련 강의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시민강좌에서 훌륭한 교육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구축,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초중등 역사 교과서나 사회과 교과서 참고자료로 소개될 수도 있기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또 다양한 교육문화기관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시민강좌나 특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역사학이나 보다 넓게는 인문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물은 정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입안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사회적 기여도와 활용도가 높으리라 기대된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대화가 가능했던 국내외 환경, 남북대화의 성과인 7·4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현재적 재인식과 이해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2020년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기념이나 2023년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일국사를 벗어난 국제적 시각의 연구를 진행해 동아시아 역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과의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동아시아사 수업이 새로 개설되는 등, 동아시아사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문제에 있어 각국 간의 갈등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침해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역사학자로서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동아시아 각국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역사학자가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고학과 동아시아의 근대사는 물론 서양근현대사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연구팀은 긴 시공간을 가로질러 글로벌적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역사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실질적 연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고학적 문명교류의 흔적이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학지식을 비롯한 서양과학기술의 수용과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인문학의 기여는 장기적으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함으로써 학계와 일반인이 인간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하도록 돋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는 춘천 중도유적이나 서울 풍납토성의 사례와 같이, 문화유적 발굴과 사유재산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중에게 그 의미를 홍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BK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과 연구진, 대학원생들은 논문 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활발히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대중강연을 지속 확대하며 연구소와 박물관 등 관련 기관들에 전문가로서 자문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 참여교수 1(성춘택) (한국선사고고학)

	국제학회/학술대회명	내용	기간/장소/언어
국제학회/ 학술대회 활동	20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Quaternary Research (INQUA)	(발표) Final Pleistocene–Early Holocene Population Dynamics and the Emergence of Pottery on the Korean Peninsula	2019.07.25.–07.31 아일랜드 영어
	9th of the Asian Paleolithic Association	(발표) Formation process of Paleolithic sites in the Lower Han River Basin, Korea	2018.08.03. 러시아 영어
	SAA Annual Meeting	(발표) Late Neolithic to Early Bronze Age Transition in Korea: Implications from the Evaluation of Radiocarbon Dates	2015.04.15.–04.19 미국 영어
	SAA Annual Meeting	(발표) On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Radiocarbon Dating	2015.04.15.–04.19 미국 영어
국제학술지 활동	* A&HCI급 국제학술지 Archaeological Research in Asia 편집위원(editorial board), ( <a href="https://www.journals.elsevier.com/archaeological-research-in-asia/editorial-board">https://www.journals.elsevier.com/archaeological-research-in-asia/editorial-board</a> ) * 고고학 전문국제학술지 Journal of Lithic Studies의 Scientific Committee의 일원 ( <a href="http://journals.ed.ac.uk/lithicstudies/about/editorialTeam">http://journals.ed.ac.uk/lithicstudies/about/editorialTeam</a> )		

###### ◎ 참여교수 2(강인욱) (동양고고학)

	국제학회/학술대회명	내용	기간/장소/언어
국제학회/ 학술대회 활동	V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Mobility and Migration: Concepts, Methods, Results”	(발표) Migration and the Formation of Statehood Xiongnu in Transbaikal: On the Materials of Heating Systems in the Settlement Complexes	2019.08.19.–08.24 러시아 영어
	문화유산 연구 및 보존 한–몽 공동연구 학술심포지엄	(발표) 고대 실크로드의 국제적 조사와 한–몽 공동조사의 전망	2019.03.27. 몽골 한국어
	초원 실크로드와 북방협력 국제포럼	(발표) 한반도 북방계 문화의 전래와 사카계 문화	2018.06.01. 카자흐스탄 한국어

	Language, History, Culture in East Asia	(발표) Reexamination of the ‘Silk Road’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History	2017.01.20. 대만(가오슝대학) 영어
	Altai among the eurasian antiquities	(발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ppearance of big tombs in Southern Siberia	2016.11.28.-11.30 러시아 영어
	Первые чтения памяти Жанны Васильевны Андреевой	(발표) Бронзовый кинжал и китайская монета из Николаевки в Приморье	2016.11.23.-11.25 러시아 러시아어
	현대 유라시아의 문화 정신적 가치	(발표) 유목과 정주사회의 융합적 가치	2016.10.19. 서울 한국어
	Silk Road again	(발표)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Prehistoric Trading Routes in Central Asia	2016.09.22.-09.23 서울(한양대학교) 영어
	Seventh Worldwide SEAA Conference	(발표) Faces of Old Joseun or Eastern Barbarian (Dongyi): Ethnic Identities of Bronze Mask Figures of the 1st Century BCE from Northeast China	2016.06.08.-06.12 미국(케임브리지/보스턴대학) 영어
	2015草原丝绸之路考古国际学术研讨会	(발표) Arzhan and Gangsha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g Barrows in Tuva and Liaodong Peninsula during 9~7th BCE	2015.10.16.-10.18 중국(런민대학) 영어
	第六届 中国北方及蒙古、贝加尔、西伯利亚地区古代文化国际学术	(발표) Newly found mold of Ordos style dagger from Kamigoden, Chiga Prefecture, Japan and its significance on interaction between steppe culture of Northern China and East Asia	2015.10.12.-10.16 중국 (내몽골) 영어
	Multidisciplinary methods in archaeology	(발표) Multidisciplinary study of mummies from medieval Korean monuments	2015.06.22.-06.26 러시아 영어

◎ 참여교수 3(박윤재) (한국근대사)

	국제학회/학술대회명	내용	기간/장소/언어
국제학회/ 학술대회 활동	제7회 국제학술대회 경북대 사학과 BK21 플러스 글로벌 역사문화 전문인력사업단	(발표) 식민지시기 한약의 양약 수용과 대응	2019.11.07.-11.08 대구(경북대학교) 한국어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	(발표) The Selective Adoption of Public Bath System in Colonial Korea	2019.08.19.-08.23 전북(전북대학교) 영어
	Colonial Medicine in Post-Colonial Times: Continuity, Transition, and Change	(발표) Changes in the Treatment of Excrement in Korea	2018.06.27.-06.30 인도네시아 영어
	保「衛生」命無所不在—東亞日常生活中的醫藥知識與健康實踐」國際學術研討會	(기조연설) Paek Inje's understanding on modern and liberalism	2017. 11.23.-24 대만 중앙연구원 영어
	植民地帝国日本における知と権力	(발표) 백인제의 근대인식과 자유주의	2017.10.13.-10.15 일본 한국어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in East Asia	(발표) From Oriental Medicine to Western Medicine	2017.01.20. 대만(가오슝대학) 영어
국제학술지 활동	The Eighth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발표) Reconstruction of Western Medicine-centered Pharmaceutical Industry in Post-liberation Korea	2016.09.30.-10.01 대만 중앙연구원 영어

◎ 참여교수 4(민유기) (프랑스사)

	국제학회/학술대회명	내용	기간/장소/언어
국제학회/ 학술대회 활동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토론) 파리강화회의와 3.1운동	2019.03.28.-03.29 서울(프레스센터) 한국어
	Séminaire AEHU 2017	(발표) Concept de l'hygiène urbaine et de la santé publique à la fin du 19e siècle en France et Asie de l'Est	2017.06.26. 파리(EHESS) 프랑스어
국제학술지 활동	*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The East-Asian Society for Urban History, 국제편집위원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2018.6~) <a href="http://easuh.org/company/editorial">http://easuh.org/company/editorial</a> *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동료평가자 Peer-Review for the Journal of East-Asian Urban History (2019.11)		

◎ 참여교수 5(조정은) (중국근대사)

	학술대회명	내용	기간/장소/언어
국제 학술대회 발표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	(발표) Renji Hospital and the Spread of Smallpox Vaccine in Modern Shanghai	2019.08.19.-08.23 전주(전북대학교) 영어
	近代东亚城市史研究国际学术研讨会	(발표) 근대 상하이 우두법의 소개와 인제의원의 역할	2019.06.22 상하이 중국어
	近代东亚城市史研究国际学术研讨会	(좌장) 报告 8	2019.06.22 상하이 중국어
	First Joint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History of Medicine in Southeast Asia	(발표) Urban Sanitation and Plague Prevention in Modern Shanghai: Focusing on Smallpox Vaccine	2018.06.27.-06.30 인도네시아 영어
	제33회 환태평양 국제학술대회	(발표) 바다와 의학지식교류—중·일 종두법의 전래와 수용	2018.01.19.-01.20 부산(부경대학교) 한국어
	Disease and Medicine in East & West: Points of difference, Points of Contact	(발표) British Medical Missionaries and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in Early Modern China	2017.07.06.-07.07 영국(옥스퍼드) 영어
국제학술지 활동	東アジア文化交渉学会	(발표) 近代中韓におけるプロテス tandem 医療宣教の様相	2016.05.07.-05.08 일본(간사이대학) 일어
	*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The East-Asian Society for Urban History, 국제편집위원회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2018.6 ~) ( <a href="http://easuh.org/company/editorial">http://easuh.org/company/editorial</a> )		

###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표 3-5> 최근 5년간(2015.1.1.~2019.12.31.)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 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공동연구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성춘택	Christopher J. Bae	미국/하와이대학	Seong, C and Bae, C. J., 2016, The eastern Asian 'Middle Palaeolithic' revisited: a view from Korea, Antiquity, 90(353), 11511165	<a href="https://doi.org/10.15184/aqy.2016.141">https://doi.org/ 10.15184/aqy.2016.141</a>
	강인우	N. N. 크라딘, V. I. 몰로딘, G, 애 렉Zen, 선월영, 반 령 등	러시아/러시아과 학원, 몽골/몽골과 학원, 중국/중국 국가박물관, 중국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8, 북방고 고학개론, 진인진	ISBN 9788963473819
	강인우	쇼다 신야, 옥사 나 얀시나, 데라 마에 나오토, 캐 서린 프리먼 등 쇼다 신야, 옥사나 얀시나, 데라마에 나오토, 캐서린 프리먼 등	일본/나라문화재 연구소, 러시아 /러시아인류학민 족학박물관, 호주 /호주국립대	쇼다 신야 외, 2018, 무기형 석 기의 비교 고고학 : 문화 수용 과정 의 모방과 창조, 서경문화사쇼다 신야 외, 2018, 무기형 석기의 비 교 고고학 : 문화 수용 과정의 모방 과 창조, 서경문 화사	ISBN 9788960622067ISB N

###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다양한 국외 대학 및 기관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 참여교수가 방문학자로 근무한 국외 대학은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도쿄대학, 러시아 노보시비尔斯크대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등이다. 또한 러시아어, 중국어, 카자흐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 등의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여 국외 연구자들과 소통해왔다.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호주, 몽골 등의 국외 전문가와 함께 공동연구성과를 출판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연구기관명/출판사명	활동/저서명	기간	비고
미국	하와이대학	Christopher J. Bae와 공동논문 게재	2016년	표3-5 참고
중국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	<의료사회사연구>편집위원	2020년	
일본, 러시아, 호주	나라문화재연구소, 러시아 인류학민족학박물관, 호주국립대	쇼다 신야, 옥사나 얀시나, 데라마에 나오토, 캐서린 프리먼 등과의 공동논문 게재	2018년	표3-5 참고
일본	研文出版	『近代中国のプロテстан트 医療伝道』	2020년 3월	일본어 저서 출판
러시아	노보시비尔斯크대학	방문학자	2016년	
러시아, 몽골, 중국	러시아과학원, 몽골과학원, 중국국가박물관, 길림대	N. N. 크라딘, V. I. 몰로딘, G. 예렉젠, 선월영, 반령 등과의 공동논문 게재	2018년	표3-5 참고
동아시아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국제편집위원	2019년~현재	

한편으로는 참여교수가 일반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국제 네트워크와 연구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외 연구자를 초빙하여 전문가초청특강을 개최함으로써,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힘쳤다. 특히 주변국들인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과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단위로 연구영역을 넓히는 초석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2018년과 2019년에는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2인이 공동연구원으로 활약한 일반 공동연구사업 ‘근현대 한국의 도시위생’에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이이지마 와타루 교수와 대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의 진정원 연구원을 초빙하여 사학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이지마 와타루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서 의료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강연을 통해 역사연구방법론에 있어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를 알아보고 기존의 접근법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원 연구원의 강연에서는 대만에서의 역사서술 방법을 듣고 식민지 조선에서 유학한 대만인 의사들을 통해 식민지와 식민지인들이 제국이라는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기존의 쌍방향적 서술과 접근을 벗어나 다원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각국을 연결하고 이해해야 함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외전문가초청특강 실적〉

연번	강연자	소속기관	강연주제	일시
1	이이지마 와타루 교수	일본 아오야마 가쿠 인 대학	외국에서의 중국사 혹은 외국사 연구 방법에 대하여	2018.10.26
2	클레르 트랭 교수	파리7대학 사학과/ 프랑스현대 동남아 시아연구소(IRASEC)	A life dedicated to Medicine: Biography of One of the first Vietnamese medical doctor	2019.09.30
3	진정원 연구원	臺灣中央研究院 歷 史語言研究所	식민지에서 체험한 제국: 조선 유학파 출신 대만인 의사들	2019.10.23
4	유키코 기와모토 교수	나고야대학	서양고대의 약초와 정원	2019.11.07
5	張勇安 소장	상하이대학교 무스 토 마약과 국가안전 연구센터	질병사, 의료사, 글로벌 위생사: 의료사회사연구의 세 가지 다층 적 시각	2020.01.06
6	張仲民 교수	푸단대학 역사학과	가짜를 진짜로 만들다: 근대 상 해의 의약품 광고 문화	2020.01.06
7	李貞德 전임연구원	臺灣中央研究院 歷 史語言研究所	질병, 의료와 문화의 역사: 젠더 적 접근과 그 너머	2020.01.17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3인이 일반연구원으로 소속된 HK+사업에  
서 정기적인 전문가초청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이 사업의 연구보조원  
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특강을 개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1차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파리7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프랑스현대 동남아시아연구소(IRASEC) 소장인  
클레르 트랭(Clair Tran) 교수를 초청해 20세기 전환기 베트남에서 의료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제5차에서는 나고야대학 유키코 기와모토 교  
수의 서양고대의 약초와 정원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제13차에서는 상하이대학의 장용안  
교수, 푸단대학의 장중민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의료사에서 주목받는 분야인 물질문명과 의  
료기술에 관한 강연 및 중국 의료사의 전망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교류는 실질적으로 국외 대학 및 기관과 체계적인 연구교류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HK+사업에 상하이대학 무스토 마약과 국가안전연구센터의 소장인 장  
용안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가 마약과 국  
가안전연구센터에서 간행하는 국제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올해 안에 본격  
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학술교류협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교육연구팀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국제 연구네트워크의 조성**이다. 교육연구팀은 지금까지 참여교수가 교류해  
온 해외기관들을 거점화함으로써 더 깊은 연결을 통해 각국에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만중앙연구원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직접적인 교류를 한 바 있는

데 이를 확대하여 정기적인 연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대학 및 IRASEC과 같은 기관들과도 기존의 초청특강을 계기로 계속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고학 분야의 참여교수 2인은 현지조사가 필수적인 고고학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교류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의 해외네트워크 관련 경력은 한국에서 러시아,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학술활동, 대외활동, 정부사업협조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고고학 전공의 참여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학자로 근무하면서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본 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네트워크가 한 번 구성되면 이후 지역 내 또 다른 기관 및 연구자들을 끌어들여 더 풍부한 연구진 및 연결망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참여교수, BK 계약교수, 대학원생의 방문 및 파견을 통한 다방향적 교류 확대이다. 초청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학자들이 해외각국에서 특강 및 세미나에 참여하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다방향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연구진과 학생들을 보내 신진연구자들의 시야 확대 및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책임연구자 및 참여연구진들은 이러한 활동에 관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면 지원이 더해질 경우 더욱 좋은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 교류가 계속된다면 정기적인 파견 및 방문으로 안정적인 연결망 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학술지 게재 및 출판 등을 통한 연구성과 확보다. 교육연구팀은 해외연구자들과 교류가 확대하는 동시에 학술적 연결을 바탕으로 해외저명학술지에 대한 논문투고 및 연구역량 증진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해외연구자들과 공동으로 논저들을 집필하는 학술적 성과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단위를 벗어나 글로벌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학술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연구팀장은 아래와 같은 공동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저자	논문명	저널명	출간 예정일
Chun Tian, Wei Liao Qiong Chen, Yanyan Yao, Chuntaek Seong, Christopher J. Bae, Wei Wang	Human behavioral responses to the 8.2 ka BP climatic event: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the Zhongshandong Cave Site in Bubing basin, Guangxi, southern China	<i>Quaternary International</i>	2020년
Jangsuk Kim and Chuntaek Seong	Final Pleistocene–Early Holocene population dynamics and the emergence of pottery on the Korean Peninsula	<i>Quaternary International</i>	심사중